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6** Vol. 198
www.bsculture.busan.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병우

 부산문화회관

부록 부산문화회관 6월 공연캘린더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 김지연 (바이올린), 김덕수 사물놀이 (전통예능인)

Program

스트라빈스키 / 발레 모음곡<불새>(1919)

I.Stravinsky / <The Firebird> Suite

비외탕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H.Vieuxtemps / Violin Concert No.5, Op.37 'Gretry'

----- Intermission -----

강준일 /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Kang Jun-il / Concerto for Samulnori & Orchestra <Madang>

시크릿 가든 / 시크릿 가든 중 <송>

Secret Garden / <Song> from a Secret Garden

스비리도프 / 올드 로망스

G.Sviridov / Old Romance

보로딘 / 폴로베츠인의 춤

A.Borodin / Polovetsian Dances



2008 | 6 | 17 | 火 |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SO Members 제1바이올린 임병원(악장),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손유정(부수석), 권아름, 조영숙, 김희진, 이은실, 서영희, 손소영, 지희원, 문경록, 이지윤, 김나윤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황지원(수석), 배연주, 김현정, 박지혜, 서희은, 김신실, 손주연, 정희경, 정다혜, 임나리, 이한울 비올라 박주연(수석), 김지연, 한동민, 이승연, 이영화, 구영숙, 김주희, 안소연 첼로 김판수(수석), 김정원, 최지양, 서송은, 김혜은, 이원아, 최재영, 김유미, 강진희, 임수미 콘트라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윤강희, 권명국, 김선경, 이현정 플루트 최낙주(수석), 김선영, 채성경 오보에 노영훈(수석), 정윤경(부수석),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홍병희(부수석) 바수운 윤태준(수석), 변지윤 호오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윤기영, 박은경 트럼펫 주현(수석), 전경윤, 전상윤 트럼본 이웅희(수석), 박서연, 조현신 튜바 김기울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하아프 김상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 송희철, 최아나, 정종혁 악보 문지은(부수석), 유종호 악기 정종혁



김덕수

김지연

오충근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협찬 Bⁿ 비엔그룹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KNN 문화재단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KNN 1577-7600 www.knn.co.kr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77세에 만나요!

생 상 동물의 사육제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피아노 · 서정원 & 최유진

2008. 6. 11 (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 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균일 10,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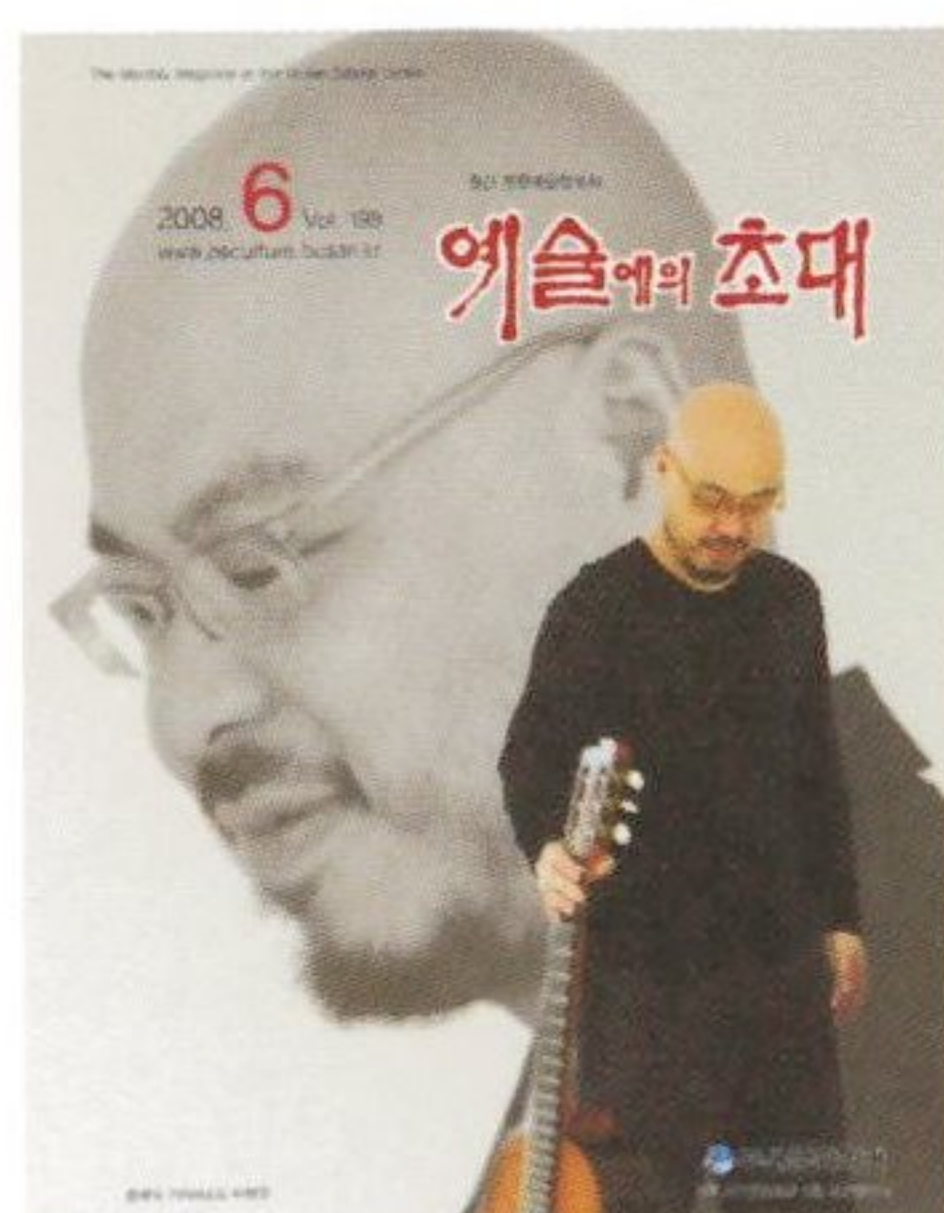


26



44

커버스토리	08	영화음악의 거장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병우
프리뷰	10	
반갑습니다	16	부산시립극단 신임 수석 연출가 채윤일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18	'필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0	미국 브라이스캐년 _ 이승주
황운기의 월드뮤직여행	23	서글픈 바람의 노래, 안데스 음악 _ 황운기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4	엘도라도를 꿈꾸는 영화 속의 위조지폐 _ 채경혜
그곳에 가면	26	부산의 대학로를 꿈꾼다 소극장 초콜릿 팩토리
우리는 문화 가족	28	음악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에버그린 앙상블
쉽게 듣는 클래식	29	고음악을 연주하는 기수들 4 _ 곽근수
프로그램 가이드	30	
새로나온 책	42	
부산문화회관소식	4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4	
100자 토크	4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49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5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6월 20일 영화 '괴물', '왕의 남자' 음악감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4년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June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제 12회 부산회화제 - 대·중전시실
6월 2일(월)~6월 8일(일)
부산미술협회(632-2400)

■ 부산디카 사랑 세 번째 전시회
-중전시실
6월 13일(금)~6월 15일(일)
오창길(018-578-7105)

■ 제 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대전시실
6월 17일(화)~6월 21일(토)
송호(245-2521, 011-845-9599)

■ 흥선생미술 부산지사 전시회
-중전시실
6월 20일(금)~6월 22일(일)
정희정(011-556-2989)

■ 제 18회 국제서화예술전-대전시실
6월 23일(월)~6월 27일(금)
국제 교류서도협회
(806-6118, 010-6800-6118)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
-중전시실
6월 24일(화)~6월 27일(금)
오장환(010-6772-1394)
부경대학교 건축학부(629-6080)

국제회의장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시상식
6월 17일(화) 14:00
송호(245-2521, 011-845-9599)

1

중 | 독거노인돕기 자선공연 춤다래무용단
'참 좋은 인연' 19:00
무료/이영순(010-6328-6362)

8

대 | 뮤지컬 '김종욱 찾기-시즌 3' 14:00, 17:00
4만5천원 · 3만원/AN시티(1644-4484)

중 | 신정희 발레단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영어
해설이 있는 발레 '피터와 늑대' 15:00
4만원 · 3만원 · 1만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소 | 채호경 피아노 독주회 15:00
초대/채호경(010-2555-6947)

15

대 |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15:00, 18:00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에스엠기획(1544-1884)

중 | 뮤지컬 '실연남녀' 15:00 18:00
5만원 · 4만원/화랑엔터테인먼트(1644-4484)

22

대 | 원향 엄옥자 정년퇴임 기념 대 출판 17:00
초대/부산대학교(510-2715, 010-9394-6248)

중 | 제 6회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슈베르트의 밤' 17:00
초대/정희자(011-589-3111)

29

중 |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3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 부터' 19:30
1만원 · 5천원/인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628-8088,
017-842-6688)

소 | 신재현 아쟁콘서트 '공감' 18:00
초대/신재현(010-4109-6508)

Monday

2

대 | 2008 김정순 발레 50년 '보은의 꽃 전 3장'
17:00, 19:30
1만5천원 · 8천원/김정순(017-572-9991)

9

중 | 신정희 발레단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영어
해설이 있는 발레 '피터와 늑대' 10:30, 11:30
4만원 · 3만원 · 1만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16

대 | UKO '제 6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정희자(011-589-3111)

23

대 |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

중 |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

소 |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

30

대 | 코람데오 카펠라, 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30
균일 5천원/황장수(010-7309-5174)

중 | 김승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김승현(010-2469-6622)
예술기획(0505-700-9798)

Tuesday

3

대 | 2008 김정순 발레 50년 '스승을 빛낸 제자들'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김정순(017-572-9991)

중 | 제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
경북도립국악단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10

소 | 사물놀이 30주년 기념 '藝風 Since 1978'
소극장 투어 공연 19:00
2만원 · 1만5천원/김정용(010-9124-8623)

17

대 | 한낮의 유콘서트 '팝페라가수 로즈와 함께
하는 클래식과 팝의 만남' 11:00
균일 1만5천원
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 KNN창사 13주년, BN그룹 창사 30주년
기념 BN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KNN(1577-7600)

중 | 멜로매니아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박광해(011-9323-5552)

24

중 |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

소 |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

7/1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7
<p>대 닥터스빅밴드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대동병원 부속실(550-9329)</p> <p>중 제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중 제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소 부산시립극단 제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대 뮤지컬 '김종욱 찾기- 시즌 3' 17:00, 20:00 4만5천원 · 3만원/AN시티(1644-4484)</p> <p>소 부산시립극단 제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6: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p>대 뮤지컬 '김종욱 찾기-시즌 3' 16:00, 19:00 4만5천원 · 3만원/AN시티(1644-4484)</p> <p>중 신정희 발레단 '영어해설이 있는 발레 피터와 늑대' 18:00 4만원 · 3만원 · 1만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p> <p>소 부산시립극단 제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6: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p>
11	12	13	14
<p>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 교향악단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p> <p>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내셔널 투어 19:30 금호문화재단(02-6303-1930)</p>	<p>대 부산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 126회 정기연주회 '나의 조국 그리고 하이든의 전시 미사'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p>	<p>소 향음음악회 19:30 무료/최인화(010-4845-4758)</p>	<p>대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16:00, 19:30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에스엠기획(1544-1884)</p> <p>중 뮤지컬 '실연남녀' 16:00 19:00 5만원 · 4만원/화랑엔터테인먼트(1644-448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18	19	20	21
<p>대 독일 함부르크 신포니에타 순회연주회 -부산 19:30 5만원 · 4만원 · 2만원/부산문화(635-9081)</p> <p>중 대한민국-우크라이나교류음악회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19:30 3만원 · 1만원 · 5천원/이진옥(010-9798-9434)</p>	<p>중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번째 발표회 19:30 1만5천원 · 1만원 · 7천원 부산대학교(510-2715, 517-0470, 010-7668-0894)</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 클래식 Fantastic 'Rhythm & Dance'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소 전한나 피아노 독주회 20:0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25	26	27	28
<p>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중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소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중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소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중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소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MBC(760-1125)</p>	<p>중 윤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7/2	7/3	7/4	7/5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p>	<p>대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MBC(760-1125)</p> <p>중 제 25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MBC(760-1125)</p>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모든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연주하는 국내 유일의 멀티 기타 플레이어

기타리스트 이병우

한국 영화의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 영화음악 감독 겸 클래식기타리스트 이병우가 6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4년만에 부산음악호가들을 찾아 온다. 기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연주하는 국내 유일의 멀티 기타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는 이병우는 그동안 클래식,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 연주 뿐만이 아니라 락, 발라드, 재즈, 팝, 블루스의 요소들을 클래식의 바탕 위에서 결합, 장르의 구분 없는 독창적인 이병우식 음악으로 구현해왔다.

열한 살 때 처음 기타를 잡은 이병우는 1984년 조동익과 함께 '어떤 날' 이란 팀을 결성하면서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들의 음반작업 때 가장 함께 하고 싶은 기타리스트로 손꼽힌 이병우는 80년대 중반 이후 무수한 앨범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한국 대중 음악사에 큰 의미가 된 '어떤 날' 의 앨범 2장을 발표하고 1989년 이병우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빈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기타과에 입학(1989), 콘라드 라고스닉을 사사하며 1994년 수석 졸업을 했다. 그 후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줄리안 그레이를 사사 하였고 전액 장학생의 수혜를 누리며 NGSW/D' Addario 기타 콩쿠르 2등 (1997), Yale Gordon 콩쿠르(1998)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우승 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병우는 2000년 피바디 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 디플로마를 받으며 Harold Randolph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의 활동 외의 이병우를 더욱 빛나게 하는 분야는 영화음악 감독으로서의 모습이다. 영화음악 작업은 임순례감독의 '세친구' (1996)를 시작으로 '스물 넷' (2000), 장편 애니메이션 '마리 이야기' (2001), '메모리즈' (2002), '장화, 홍련' (2003),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2003), '연애의 목적' (2005), '분홍신' (2005),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005), '왕의 남자' (2005), '호로비츠를 위하여' (2006), '괴물' (2006) 등을 작업했다. 2006년 가진 이병우 영화음악 콘서트에서는 그가 작곡한 영화음악 '괴물' 을 비롯해 '1번가의 기적', '그놈 목소리', '날아라 허동구', '수', '아들', MBC 다큐멘터리 '황하' 에 이르기까지 영화음악 시장을 뜨겁게 달군 대표곡들을 발표했다.

영화음악 감독 이병우는 상복이 많다. 2002년 12월 제1회 대한민국영화제, 2003 영화비평가협회 음악상, 2004 상하이 국제영화제 음악상, 2006년 제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 제5회 대한민국영화대상 음악상 등을 수상하고 우리나라 영화음악의 거장 반열에 올랐다.

2000년 이병우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실험정신을 가지고 음악 프로덕션 무직도르프(Musikdorf '음악이 있는 마을')를 설립, 클래식, 재즈, 블루스, 일렉트로닉 록, 팝, 크로스오버, 영화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 이병우는 지중해의 빛깔, 분위기, 멜로디를 멋지게 표현한 기타협주곡 '아랑훼즈 협주곡' 을 들려준다. 이병우는 200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무대에 앞서 1998년 5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가진 첫 협연무대에서 아랑훼즈 협주곡을 연주한 바 있다. 부산에서 아랑훼즈 협주곡을 10년만에 연주하게 되어 이병우 씨 자신도 음악회에 기대가 크다.



제 6회 부산전국창작국악 관현악축제 2008

- 6월 3일(화)~5일(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상임지휘자 김만석



경상북도립국악단

창작국악관현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년 무대가 6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각 시도의 실력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해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경상북도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출연해 흥겨운 창작국악축제를 펼친다.

첫 날인 6월 3일에는 상임지휘자 김만석이 이끄는 경상북도립국악단이 무대에 오른다. 1992년 창단된 경상북도립국악단은 그동안 '즐거운 국악'을 지향하며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 뿐 아니라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물놀이와 무용단의 소고춤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 '복소리'를 비롯해 고대 신라로부터 이어져오는 경상도지역의 웅혼한 기상을 노래한 창작관현악 '동천', 달의 신비로움을 거문고의 중후한 음색으로 표현한 거문고협주곡 '달무리', 궁중무용의 기품과 민속무용의 흥겨움으로 태평성대를 표현한 무용과 관현악 '여명의 빛', 개그와 판소리가 만난 이색무대 '심봉사 놀다 歌', 경기벚노래의 선율을 테마로 한 창작관현악 '신벚놀이' 등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는 경북도립국악단 단원 이성원(거문고), 박정덕(사물구성), 김희경(안무), 김수희(소리), 조정자(소리)가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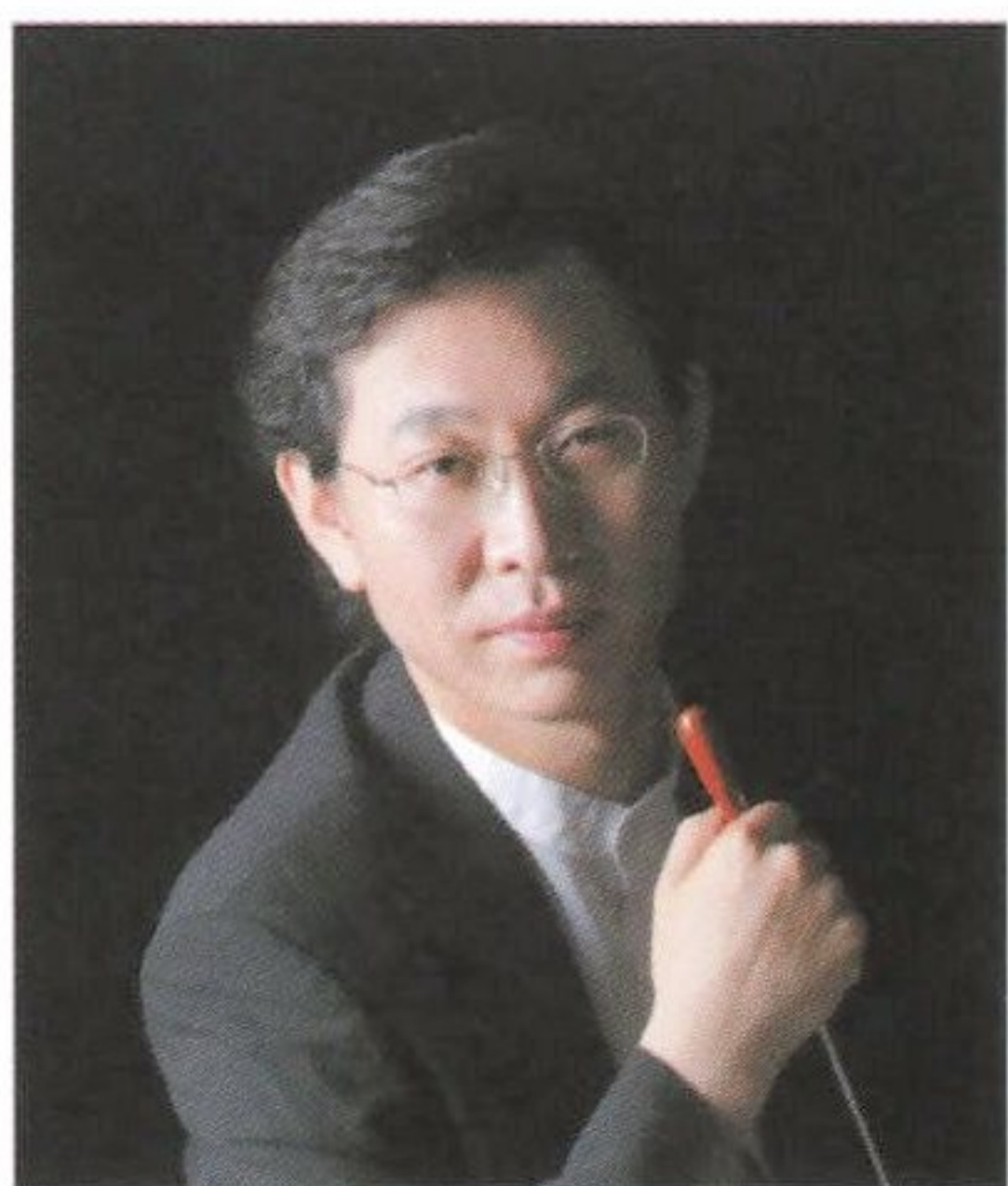
둘째 날인 4일에는 상임지휘자 임진옥이 이끄는



상임지휘자 임진옥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수석지휘자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1981년 연정 임윤수 선생의 국악사랑을 모태로, 지역 최초로 설립된 시립국악원인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그동안 국내외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비롯 시민국악강습, 초등학교원 직무연수 등 전통음악의 바른 전승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셋강의 변화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노래한 창작관현악 '셋강의 소리'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 창작관현악 '통일 그 날이 올 때까지', 대표적인 대금독주곡인 '청성곡'과 가야금 협주곡 '달하노피곰', 창작곡 '산아! 산아! 계룡산아!' 남도민요 '성주풀이, 개고리타령, 동해바다, 각시풀'을 들려준다. 목원대학교 교수인 대금주자 신응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인 가야금 주자 민의식,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단원 김미숙, 오지영(남도민요)와 소리꾼 김소희(노래)가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들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수석 지휘자인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화랑을 표현한 창작관현악 '화랑(2005년 위촉곡)'을 비롯 시인 강은교의 시 '문 열어라 온갖 차별이여'의 운율에 맞춰 성악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조화를 이룬 low-voice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문열어라(2006년 위촉곡)', 조조의 애마로 자신의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달리는 빠른 말을 상징하는 '절영'의 전설을 담아낸 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2005년 위촉곡)', 4대의 장고와 관현악이 앙상블을 이루는 설장고 놀음을 위한 '모리(2006년 위촉곡)', 부산바다의 역동성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한 '꿈의 바다(2004년 위촉곡)'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인 신은주와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수석 최영수,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신문범이 협연한다.

■ 6월 3(화) 경상북도립국악단

프로그램

박정덕(사물구성)/북소리
이준호/관현악 '동천(東天)'

정대석/거문고 협주곡 '달무리'
박범훈/무용과 관현악 '여명의 빛'
개그판소리 '심봉사 놀다 歌'(극본/김은정, 편곡/김만석, 작창 및 소리/김수희, 조경자)
원일/관현악 '신뱃놀이'
· 지휘/김만석(상임지휘자)
· 협연/이성원(거문고 · 경상북도립국악단 악장), 박정덕(경상북도립국악단 타악수석), 김희경(안무 · 경상북도립국악단 무용수석), 김수희, 조경자 (소리 · 경상북도립국악단 단원)

■ 6월 4(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프로그램

이금섭/관현악 '셋강의 소리'
황의중/관현악 '통일 그 날이 올 때까지!'
황병기(편곡/지원석)/가야금 협주곡 '달하노피곰'
백성기/산아! 산아! 계룡산아!
임진옥/관현악 '청성곡 협주곡'
김희조/남도민요 '성주풀이, 개고리타령, 동해바다, 각시풀'
· 지휘/임진옥(상임지휘자)
· 협연/신응재(대금 · 목원대 교수), 민의식(가야금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오지영, 김미숙(남도민요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단원), 김소희(노래)

■ 6월 5(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프로그램

백규진/화랑(2005년 위촉곡)
진규영/low-voice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문열어라' (2006년 위촉곡)
강봉천/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 (2005년 위촉곡)
이경섭/설장구 놀음을 위한 '모리' (2006년 위촉곡)
정동희/꿈의 바다(2004년 위촉곡)
· 지휘/박호성(수석지휘자)
· 협연/신은주(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 최영수(베이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신문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 6월 5일-7일 목요일 오후 7:30, 금-토요일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3월 '한 여름밤의 꿈'으로 2008년 첫 무대를 가진 부산시립극단이 일본작가 쓰쓰미 야스유키의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1997년 초연된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슬픔의 공간인 화장터에서 생긴 이야기이다. 부산연극제에서 '인류 최초의 키스'로 대상을 수상한 연출가 오정국이 객원 연출을 맡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갈림길, 연기가 되기 직전의 두 영혼이 이승을 하직하면서 나누는 진솔한 우리네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젊은 연출가 오정국은 1989년 극단 현장의 '유리동물원'에 출연하며 배우로 연극과 인연을 맺었다. 그동안 배우로 '하늘로 간 고래', '달구소리', '자갈치', '남자 길들이기' 등 부산의 화제작에 출연한 오정국은 2001년부터 연출가로 변신했다. 그동안 극단 시나위 정기공연 '펠리칸', '왕자', '검정고무신', '인류 최초의 키스' 등을 연출해 호평받았다.

연기처럼 덧없고 안타까운 인생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지난해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으로 선정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화장터에 흰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각자 소파에 앉아 바깥세상을 하염없이 바라 보고 있다. 김진우와 기영식은 이승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는 길이 못내 아쉽기만 한데, 뜻밖에도 치매를 앓는 김진우의 어머니가 죽은 자를 볼 수도,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머니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화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동양적 사고(상상력)와 가치관이 관객들에게도 친밀감과 극적 흥미를 더해준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유승주가 김진우로, 이돈희가 기영식으로 열연한다.



- 작/쓰쓰미 야스유키
- 번역, 각색/김순영
- 연출/오정국
- 출연/김은희, 박찬영, 백길성, 백상희, 엄준필, 염지선, 유성주, 이돈희, 이혁우, 이현주, 임해련, 정행심, 황창기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여성, 주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가 6월 11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지휘자 금난새와의 행복한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날 무대는 지휘자 금난새의 유쾌하고 재치있는 해설로 풍자와 기지가 가득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으로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난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인기 프로그램인 ‘클래식은 내친구’를 비롯하여 ‘도서관 음악회’, ‘위대한 베토벤 시리즈’, ‘포스코 로비 콘서트’,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철저한 고객지향적 서비스 프로젝트들로 큰 성공을 거두며 민간 오케스트라 운용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 무대를 위해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음악성,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흡인력 있는 연주로 국내외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정원과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최유진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후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MM)와 Graduate Diploma를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인디애나 음대에서 Artist Diploma를 취득한 서정원은 현재 라이프치히 유로뮤직 페스티벌 초빙교수, 부산국제음악제 뮤직 아카데미 주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유진은 서울예고 1학년 재학 중 도미, 미국 보스톤의 명문 음악대학인 New England Conservatory를 수석 졸업,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Hochschule fu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in Frankfurt am Main 국립음대에서 유럽의 최고 학위인 Konzertexamen(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중이다.

이번에 들려줄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1886년 샤를느 르보크가 주최하는 사육제의 음악회에서 청중들을 놀라게 해 주려고 작곡되었다. 모두 14곡으로 된 이 모음곡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곡들을 삽입해 흥미를 주고 있다.

‘고별(Abschied)’이라는 표제가 붙은 하이든 교향곡 제 45번 ‘고별’은 마지막 끝부분의 Adagio에서 연주자들이 자신의 연주가 끝나면 악기를 정리하고 보면대 위의 촛불을 끄고 퇴장해 결국 두 명의 연주자만 남아서 작품을 끝맺기 때문에 ‘고별’ 교향곡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휘자 금난새



피아니스트 서정원



피아니스트 최유진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 126회 정기연주회

나의 조국, 그리고 하이든의 전시미사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이 땅 조국을 지켜낸 선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6월 12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 126회 정기연주회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친다.

수석지휘자 김강규는 특별히 이번 무대를 몸으로, 피로 이 땅이 조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들을 위한 노래로 감사의 무대를 꾸몄다.

1부는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에 익은 대중적인 합창곡 '내 나라 내 겨레' (백현주 편곡), '우리의 작은 섬' (이현철 곡), '이 땅은 너의 땅, 철망 앞에서' (백현주 편곡)와 작곡가 홀스트의 '조국(Homeland, G.Holst 곡, 편곡 Z.Randall Stroope)' 합창곡으로 조국의 아름다움과 주어진 현실, 나라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한다.

2부에서는 하이든(J.Haydn 1732~1809)의 '전시의 미사(Mass in Time of War)'를 연주한다. 1776년에 작곡된 하이든의 '전시미사'는 당시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었던 북 이탈리아에 대한 나폴레옹군의 격렬한 침략이 전개되고 있을 시기여서 애국자 하이든은 나폴레옹의 위협에 대한 분노의 표명으로 이 곡을 썼다고 전해진다. 특히 마지막 곡인 '아뉴스 데이'에서 쓰여진 독주 팀파니의 의미는 전쟁에서의 공포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연주에서는 소프라노 최훈녀(동의대학교 교수), 알토 강희영, 테너 김지호, 베이스 서관수가 독창자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김 강 규



소프라노 최 훈 녀



알토 강 희 영



테너 김 지 호



베이스 서 관 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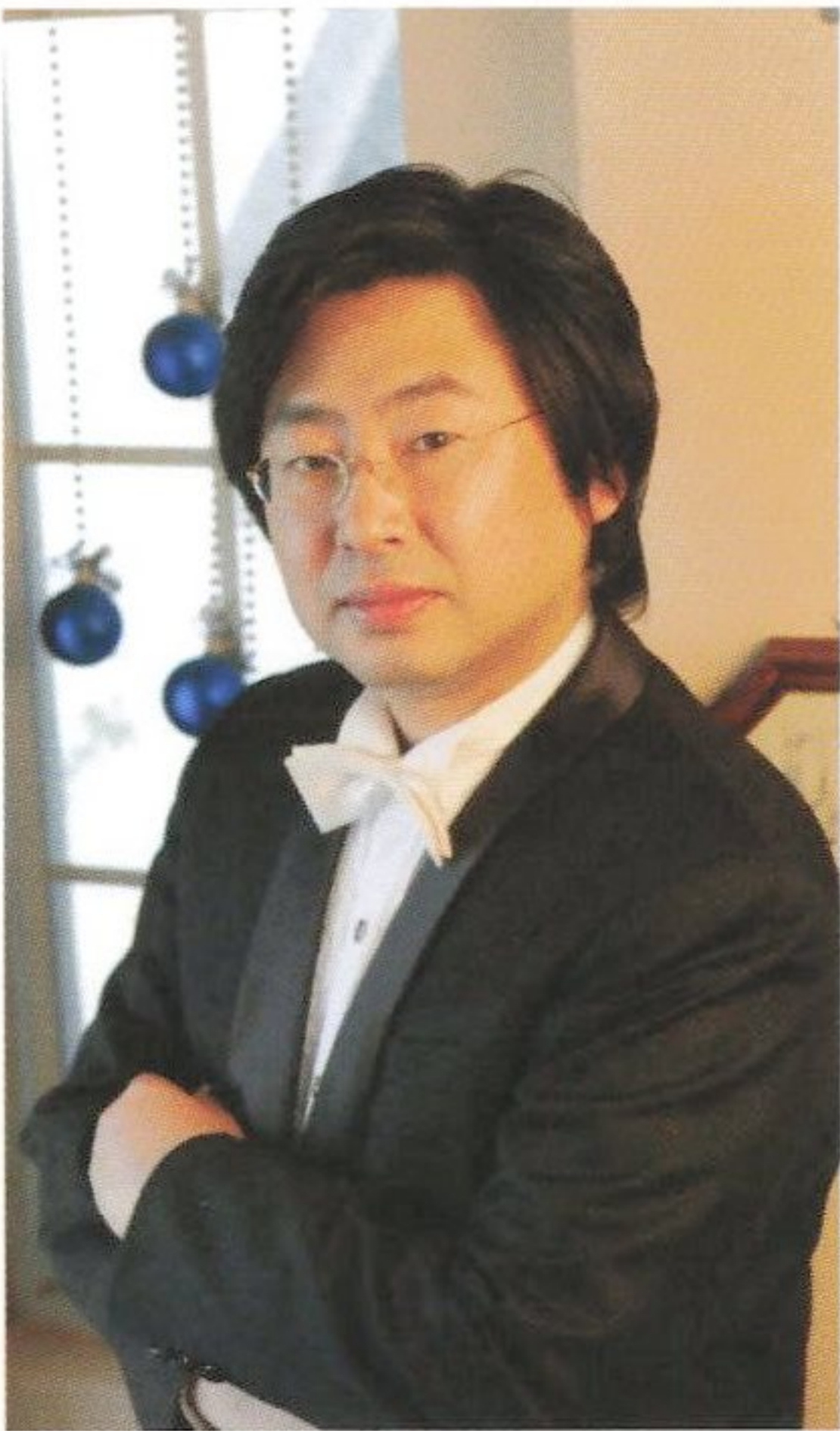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클래시컬 Fantastic

'Rhythm & Dance'

-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이 동 신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 병 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싱그러운 여름의 길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연주자 이병우를 초청, 열정 넘치는 경쾌한 리듬의 춤곡으로 특별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의 타이틀은 라틴클래시컬 Fantastic 'Rhythm & Dance'. 시민 클래식 교실과 부산문화대학의 명 강의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의 사랑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스페인과 남미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과 춤을 클래식 선율로 재해석한 다양한 레파토리를 들려 준다.

한국 영화 흥행 역사를 다시 쓴 '괴물'과 '왕의 남자' 등 18편의 영화음악을 담당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병우는 표현형식에 한계를 두지 않는 다채로운 기타 연주와 더불어 작곡, 작사, 편곡, 앨범 프로듀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병우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악 대학 클래식 기타과를 수석졸업(Einstimmige Auszeichnung, 1994)하고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Harold Randolph Prize를 수상하며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NGSW/D'Addario 기타 콩쿠르(1997), Yale Gordon 콩쿠르(1998)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우승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한국에서 다수의 클래식 공연과 협연을 하였다. 20대 초반부터 발표한 프로젝트 듀엣 '어떤 날' 1, 2집과 다섯 장의 기타연주앨범, 아홉 장의 영화 OST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음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3년 발표된 기타솔로앨범 '흡수'는 해외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의 연주회와 음반에 실리고 있으며, 다수의 영화 OST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유명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이병우는 제 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2006): 왕의남자, 제5회 대한민국 영화제 음악상(2006):호로비츠를 위하여, 상하이 국제영화제 음악상 (2004):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영화비평가협회 음악상(2003):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제1회 대한민국 영화제 음악상 (2002):마리아 이야기 등을 수상했다.

2004년 5월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이후 4년만에 부산을 찾은 이병우는 이번 무대에서 최고의 기타 협주곡으로 꼽히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들려준다. 그외에도 환상적인 춤과 리듬이 살아있는 투리나 '환상적 무곡 작품 22', 피아졸라 '탕가조',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신임

수석 연출가

채 윤 일

감동과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 있는 작품선사

“내 평생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부산과 인연은 인연인가봐요.”

우리나라 연극계를 이끌어온 연출가 중 한 사람인 극단 씨실 대표 채윤일(62) 씨가 4월 부산시립극단 수석 연출가로 새로운 연극인생을 시작했다.

대연동에 원룸을 잡고 부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꾼 채윤일 씨는 그의 말대로 부산과 인연이 많다. 원산이 고향인 채윤일 씨는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와 초등학교 2학년 때 까지 부산에서 생활했다. 23살 성년이 되어서는 8살 연하의 부산 여고생을 만나 10년 이상 연애 하느라 광안리며 송도 등을 쫓아 다녔다.

채윤일 씨는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한 충격적 무대 표현과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 시적인 감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개성 있는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1976년 극단 산울림에서 ‘홍당무’로 데뷔한 그는 1976년 극단 씨실을 창단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라는 명제를 내걸고 꾸준히 창작극을 발표해왔다.

그는 연극 ‘불가불가’로 1988년 백상예술대상과 한국 예술평론가협회 선정 최우수 연출가상을 수상했고 1996년에는 ‘나는 개처럼 살고 싶지 않다’로 한국백상예술대상 연출상, 2003년 ‘불꽃의 여자-나혜석’으로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지금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불가불가’는 박정자, 이호재 등이 출연한 작품으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불가불가’ 외에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산뜻김’, ‘카덴자’ 등 화제작들을 많이 발표했다.

해외 무대에서도 그의 작품은 인기가 높다. ‘카덴자’로 1991년 일본 동경 ‘타이니 엘리스페스티벌’에 참가한 그는 1998년 ‘산뜻김’이 스위스에서 열린 ‘취리히 세계연극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면서 스위스 4대 도시에서 공연을 가져 까다로운 유럽 관객들에게 우리 연극을 알리기도 했다.

많은 작품을 진행하며 그는 우리 연극계에서 ‘순악질’이란 별명을 얻었다. 작업을 시작하면 밥을 먹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는 그는 대다수 연극인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작업할 때 지원금 대신 집을 담보로 잡히고 연극작업을 했다. 혹독한 연습과 완벽을 추구하는 작업 스타일 때문에 그는 배우 박정자 씨에게도 별난 사람으로 불린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토·일요일이 없다고 강조하는 그는 창단 10년을 맞은 부산시립극단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책임자

로 주목 받아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 위촉에는 연출가 이윤택 씨의 역할이 컸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당시 예술감독위원으로 부산시립극단과도 인연이 많은 이윤택 씨는 1989년 초연한 ‘오구-죽음의 형식’부터 지난해 ‘정말 부조리하군’까지 채윤일 씨와도 꾸준히 작업을 해왔다.

“이윤택이 연출한 ‘리어왕’으로 부산시립극단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 부산시립극단을 처음 알게 되었지. 지방극단이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때 ‘리어왕’을 보고 서울 연극인들이 많이 놀랐지.”

채윤일 씨는 그때 받은 부산시립극단의 첫 인상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 이번 부산행을 주저하지 않았다. 수석연출가로 부산시립극단에 부임하면서 단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타성에 젖지 말자’는 것이다. 올해가 창단 10주년인 만큼 그동안 부산시립극단을 지켜봐온 연극애호가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대신 연기하고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살아본 게 아니니까 제대로 표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어머니가 1960년대 어린이 극단 대표로 많은 아동극을 발표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연극과 인연을 맺은 그는 어린이 연극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부산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연극도 해보고 싶다. 그동안 남산 어린이회관 개관 기념 공연작인 ‘마지막 수업’, 전국 4대 도시 순회공연을 가진 ‘별’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한 바 있다.

채윤일 씨는 6월에 열리는 제 32회 정기공연부터 역량있는 30대의 젊은 부산연극인들에게 객원 연출 기회를 주고, 부산시립극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6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상임단원들의 연습과정과 작업 진행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그는 시립극단 비상임 단원들을 따로 모아 6월 12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르는 ‘찾아가는 무대-위자료’ 공연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감동이 있는 작품, 신선한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나고 싶다는 채윤일 씨. 그는 10월 정기공연으로 부산 연극 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글/백경옥〉

“필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보리피리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人環)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放浪)의 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날리리

나환자로서 恨많은 한평생을 보낸 한하운(韓河雲) 시인의 <보리 피리>라는 시(詩)다.

시인 한하운, 그는 함남 함주 출생으로 북경대학농학원 축목 학계를 졸업한 지성과 감성을 겸전한 엘리트였다.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해서 시인이 되었으며 '리라' 라는 여인과 열애(熱愛)를 하면서도 아름다운 '리라' 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를 멀리하고 그가 나를 멀리하면서 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시에서는 말할나위도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리라' 를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는 한하운이었다.

예부터 '잊음의 사상'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잊으려, 잊으려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끝내 잊혀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잊지 않으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도 불연듯 잊어버리는 것이다. 앞의 것을 '불망(不忘)의 잊음'이라 하고 뒤의 것을 '망각(忘却)의 잊음'이라 한다. 시인 한하운과 그의 연인 '리라'의 사랑은 '불망의 잊음'을 대표하는 잊음이라고 하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다. 시인 한하운이 나병환자가 아니고 '리라'와 열애 끝에 부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 번 거듭 반추하게 된다.

시인 한하운은 <보리피리>,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씨다>, <파랑새되어>, <인골적(人骨笛)>, <황토길>, <은진미륵불> 등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의 불운한 운명처럼 그의 시 역시 한결같이 뼈를 깎는 고독·절망·실의·좌절·방황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 <보리피리>도 냉대와 소외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통곡이며 절규라고 하겠다.

“나는/나는/죽어서/파랑새 되어//푸른하늘/푸른들/날아다니며//푸른노래/푸른울음/울어예으리//나는/나는/죽어서 파랑새 되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天安)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롬거리며/ 가는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地下足袋)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한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千里), 먼 전라도 길”

“간 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위에 떨어진다//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찢다/ 하얀 봉대를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날이 따스해지면/남산 어느 양지 터를 가려서/깊이 깊이 땅파고 묻어야겠다”

“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罰이올시다/아무 法文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옛날부터/사람이 지은 죄는/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그러나 나를/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罰이올시다//

한하운시인의 시 <파랑새>, <전라도 길=소록도 가는길>, <손가락 한마디>, <罰>를 다시한번 새겨 보았다. 기적과 요행이 일어나지 않는한 인간의 의지나 신념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모색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속에서 죄도 없이 天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罰을 받아야 하는 시인의 뼈저린 아픔과 원한이 가슴을 메이게 한다.

작곡가 조념(趙念)은 1922년 함경남도 해산진 출신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가정에서 다정다감한 소년기를 보내면서 자랐고 본격적인 음악교육을 받기위하여 일본 도쿄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대)에 들어가 나가이 미에코(永井美惠子)와 후쿠이 이와오(福井巖)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하면서 부전공으로 작곡을 선택, 샤피로(Konstonchen Scha-piro)를 사사했다. 뿐만 아니라 화성학은 그 당시 좋은 가곡을 많이 남긴 작곡가 나리 다다메조(成田爲三)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는 음악학교 예과때 전교 바이올린오디션에서 최고점을 얻었고 본과 2년때에는 교내연주회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하여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질을 일찍부터 평가받기도 했으나 바이올리니스트에서 작곡가로 변신한 동기는 로망 로랑의 소설 <장크리스토프>를 읽고 역시 연주보다는 창작이 우위라고 결

심한데 있다고 한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신문배달로 고학을 했는데 배달인 동지를 규합, 반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비국민(非國民)이란 딱지를 받고 퇴학당했으나 후에 은사인 나가이 미에코교수가 보증인이 되고 학교선배였던 금수현의 도움으로 졸업자 명단에 가까스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가족이 만주 하르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바이올린의 귀재 아우워(Auea) 문하인 바이올리니스트 델크텐 베르크(Derktenberg)에게서 연주기술을 갈고 닦아 정말 음악 연주란 어떤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8·15해방이 되자 광복된 조국을 보기 위하여 바이올린 하나만을 달랑 들고 귀국, 당시 고려교향악단 단원으로, 그리고 김생려 씨가 지휘자로 있었던 서울관현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서 고국에서의 음악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6·25동란이 일어나자 대구로 피난, 그곳에서 '가곡연주회'를 조직 음악책임자로서 오페레타 운동을 전개했으며 제1회 공연은 김동진작품 '을지문덕'에 이어 제2회 공연에는 자신의 작품 '비련'을 공연했다. 전쟁의 어수선한 와중에 음악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는 김천(金泉)으로 가서 그곳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피아니스트 이경희 반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어 음악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여러번의 작곡발표회를 가졌으며 가곡에 '보리피리', '일요일', '성벽', '꽃초롱', '호수', '봄', '봄바람', '진달래꽃', '눈', '초동아', '기적', '춘삼월', '대낮' 등이 있고 피아노독주곡에는 '여명', '환희' 피아노삼중주곡에는 '젊음', '8월의 노래' 등이 있다. '8월의 노래'는 김영애 반주로 작곡가 자신이 연주했다.

이 밖에 피아노 소품 '마음의 고향', '가을' 현악 4중주곡 '군중'은 조념, 김찬영, 강필정, 홍경표가 멤버가 되어 연주했으니 그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작곡과 연주에서 동시에 음악적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의 1972년작인 가곡 '잘가라'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진 아들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으로 작사도 자작시로 만든 곡이다.

조념의 음악세계는 어딘지 비극적(悲劇的)이고 애상적(哀傷的)인 분위기를 깔고 있다고들 한다. '보리피리'는 1952년 겨울에 작곡되었다. 시인 한하운이 고향과 어린시절을 그리며 눈물어린 피리를 불면서 절통(切痛)할 슬픔을 짓씹으며 방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리”



아름답다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곳

브라이스캐년

이 승 주 | 미국통신원

미국에는 넓은 땅덩어리만큼이나 아름답고 웅장한 국립공원이 많이 있다. 한번쯤은 다 다녀보고 싶었지만 한정된 시간에 머물렀기에 주변사람들에게 추천받아 몇군데를 선택해서 다녔다. 이번에 내가 방문한 곳은 브라이스캐년(Bryce Canyon)인데, 이곳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

현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유타주(Utha)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계단식 원형분지로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중 하나이다. 이곳 유타주는 몰몬교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브라이스캐년도 몰몬교인들이 가축을 방목하면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이름또한 발견한 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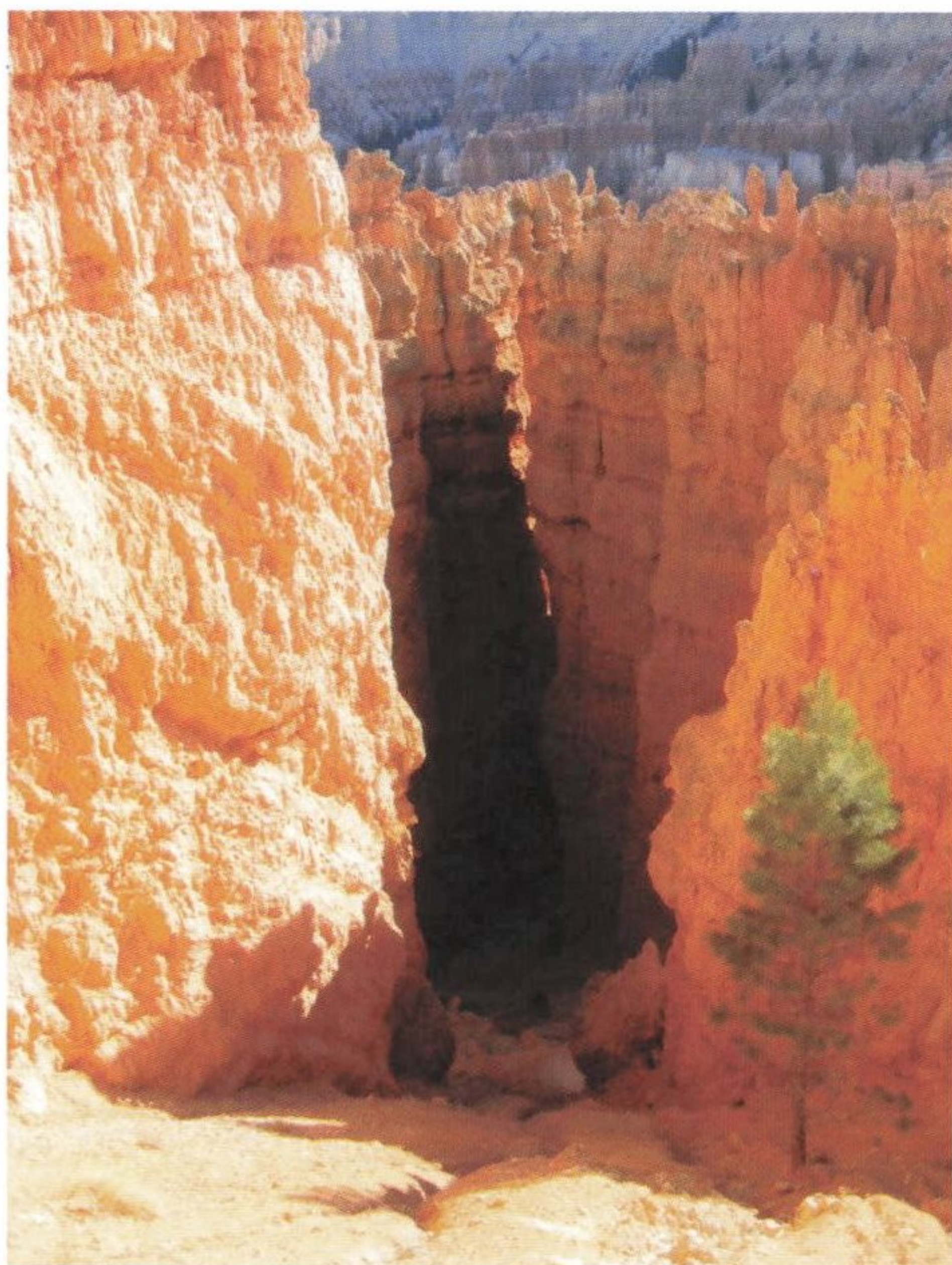
한다. 브라이스캐년은 1923년에 미국의 국가천연기념물로 1928년에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142km²로 미국 국립공원의 평균크기보다 작은 규모이다. 미국의 5대 국립공원 중 하나이고,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과 더불어 미서부의 3대 캐년으로 한 번 찾은 이들에게 더없는 자연의 선물을 주는 곳이다. 하지만 위치가 쉽게 찾아가기 힘들어 아직 많은 이들이 이곳은 지나쳐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 출발한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Riverside)인데, 브라이스캐년까지 가기 위해 우리 일행은 교통수단과 숙박지로서 캠핑카를 선택했다. 좁은 우리나라의 차도를 생각하면 생각못 할 일이지만 넓은 땅덩어리에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야지 다음 마을에 도착하는 이곳 도로 상황을 생각한다면 캠핑카는 자유로운 여행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너무 경험해 보고 싶었던 일기기에 차를 고르고, 몇 일 동안 우리가 먹을거리를 챙기는 동안 처음 타보는 캠핑카와 앞으로 펼쳐지게 될 풍경에 대한 설레임에 마음은 이미 출발 전에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바다 주로, 그리고 유타 주까지 가는 동안에 여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전력을 충전하고 휴식도 취하며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캠핑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캐년(Canyon)란 이름은 협곡을 뜻하지만 사실 이곳은 콜

로라도 고원지대의 퍼서건트(Paunsagunt) 고원이 비와 얼음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부식을 하면서 생겨난 원형의 분지에 후두스(Hoodoos)라고 불리는 다채로운 첨탑이 20마일 가량 계속 이어진 곳이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3대 캐년 중 하나인 그랜드캐년과 비교하면, 이곳의 면적은 그랜드 캐년의 반정도이지만 그랜드캐년을 방문하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브라이스캐년 광경에 넋을 잃을 정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여하튼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를 지나 구비구비 산너울을 지나 미국 유타주 남서쪽으로 달리다 도착한 곳에는 넋을 잃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브라이스캐년은 성탑 모양의 수백 개의 돌기둥인 후두스(Hoodoos)라고 불리는 특별한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주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자연의 힘으로 빨강, 오렌지, 하얀색 등을 층층히 띠고 있는 이 후두가 만들어내는 모습은 정말 독특하고 황홀한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전망대 쪽에서 내려다보면서 후두스(Hoodoos)들은 층층히 도대체 어떤 많은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사람이 살았을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곳이 혹시 숨겨져 있던 도시의 형상은 아닐까? 하는 정말 아주 사소하면서 황당한 궁금증들이 하나하나 유발되기도 했다. 웬지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 이곳이 많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찾은 이 하나 없는 시간 동안에도 바람이 비가 그리고 동물들이 친



구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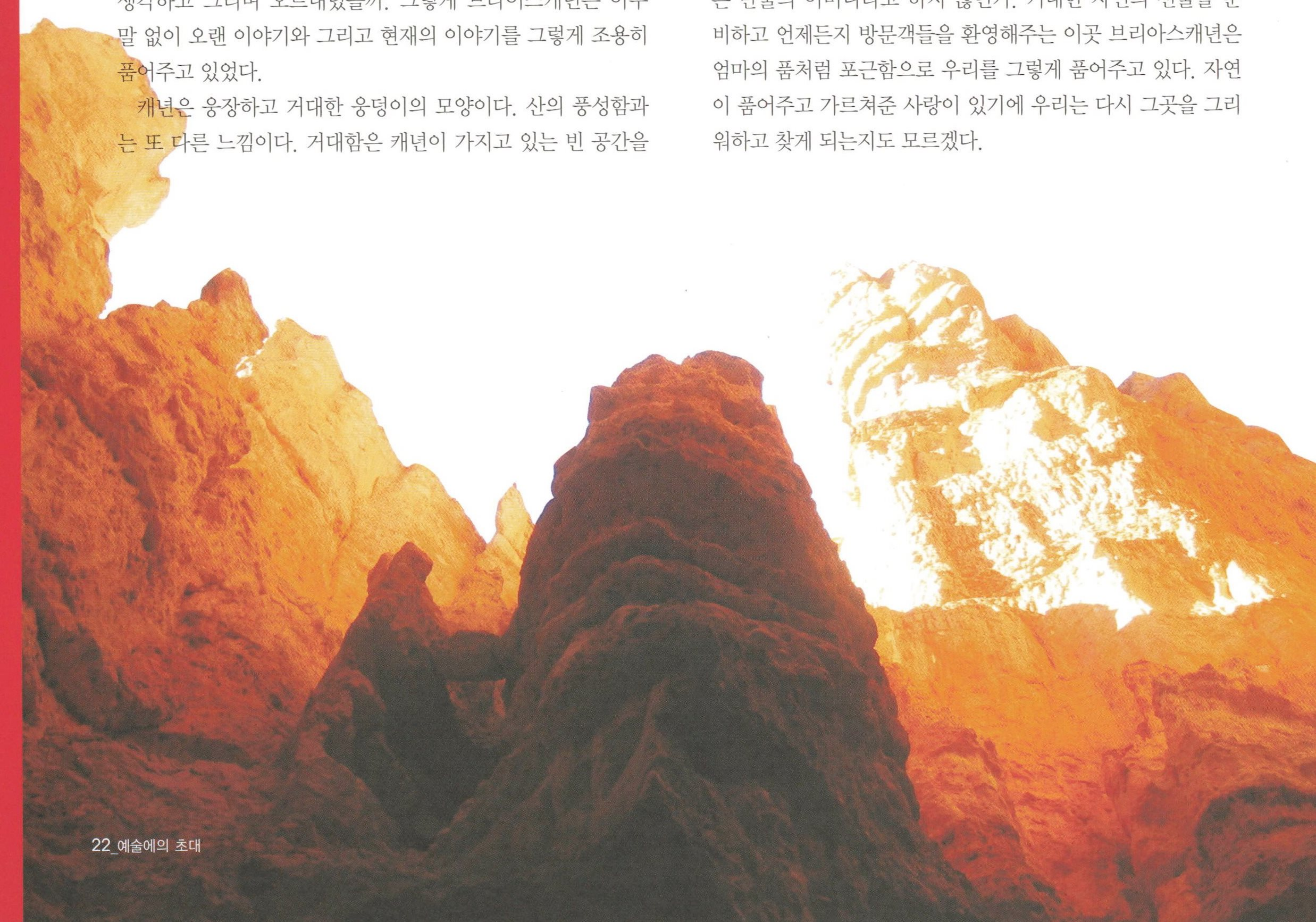
이곳은 후드를 타고 내려가는 트래킹코스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의 깊이였지만 그곳까지 가서 도전하지 못하면 왠지 두고두고 후회할 듯해서 용기를 내봤다. 워낙에 정비를 잘 해놓아서 위험하지는 않았다.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그 웅장한 역사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구비구비 한 길을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만난 서로 의지하고 손잡아 주면서 올라가던 노부부에게서 완벽한 복장차림에 앞만 보고 달리던 여행객에게서, 가벼운 미소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표정이었다. 조금은 다들 힘들었을 텐데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사연들을 자연이 포근히 감싸줘서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마음속으로 그들과 나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정말 멋있죠? 이곳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이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속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리며 오르내렸을까. 그렇게 브라이스캐년은 아무 말 없이 오랜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그렇게 조용히 품어주고 있었다.

캐년은 웅장하고 거대한 웅덩이의 모양이다. 산의 풍성함과 또 다른 느낌이다. 거대함은 캐년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을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 공간은 거대함만은 아니었다. 캐년의 공간은 비어 있는 듯하지만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나 역시 비록 작은 여행객이었지만 그 공간에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은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을 듯하다. 누구와 함께였는지에 따라 여행에 대한 기억은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한다. 힘든 일정이지만 본인들이 맞본 자연의 위대함을 선물해 주기 위해 힘든 여정을 계획한 사랑하는 나의 또 하나의 가족 Dee와 Rich, 그리고 함께한 Lesley와 Yuka, 그들과의 추억을 나는 내 마음에도 그리고 브라이스캐년에도 담고 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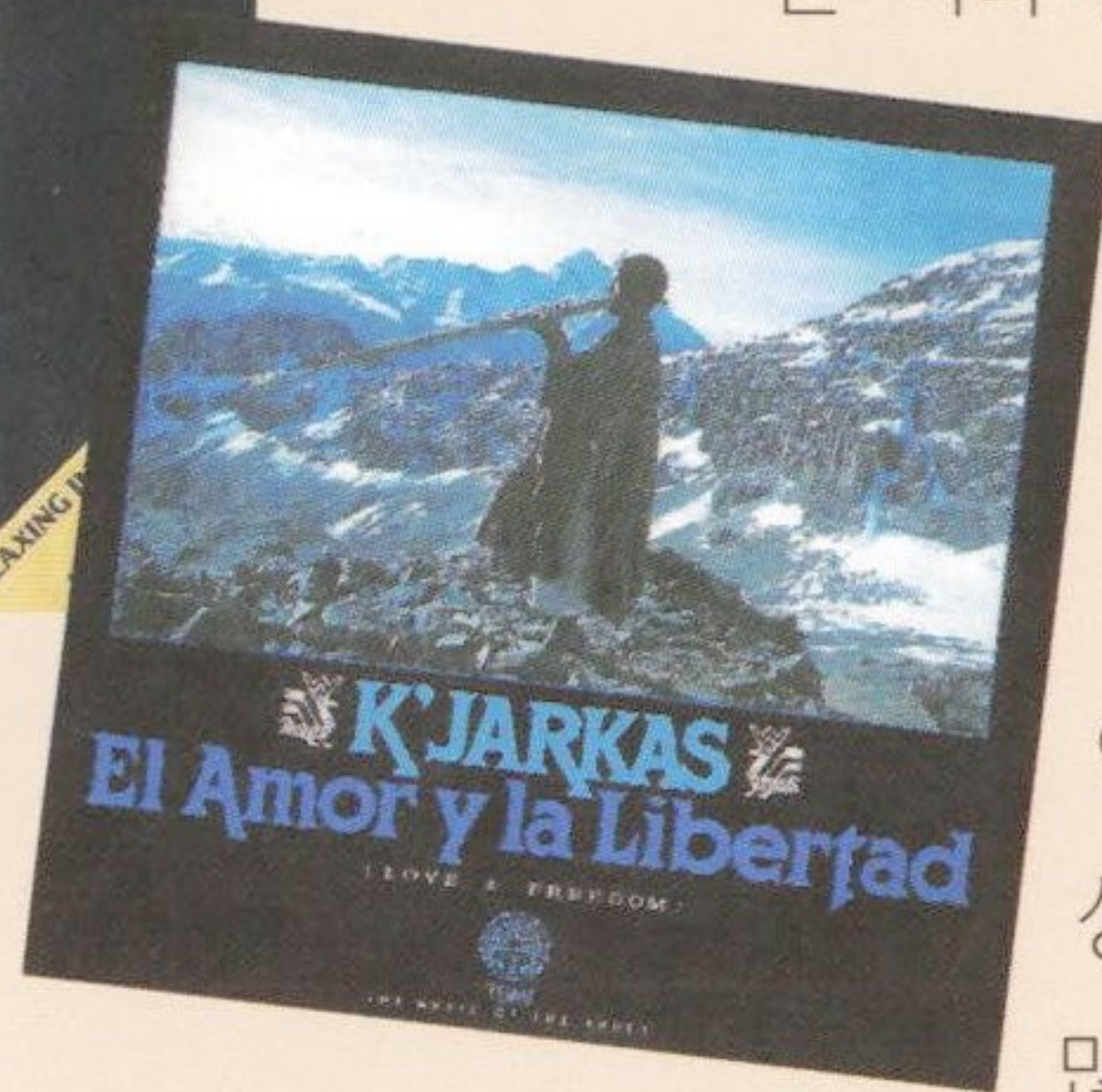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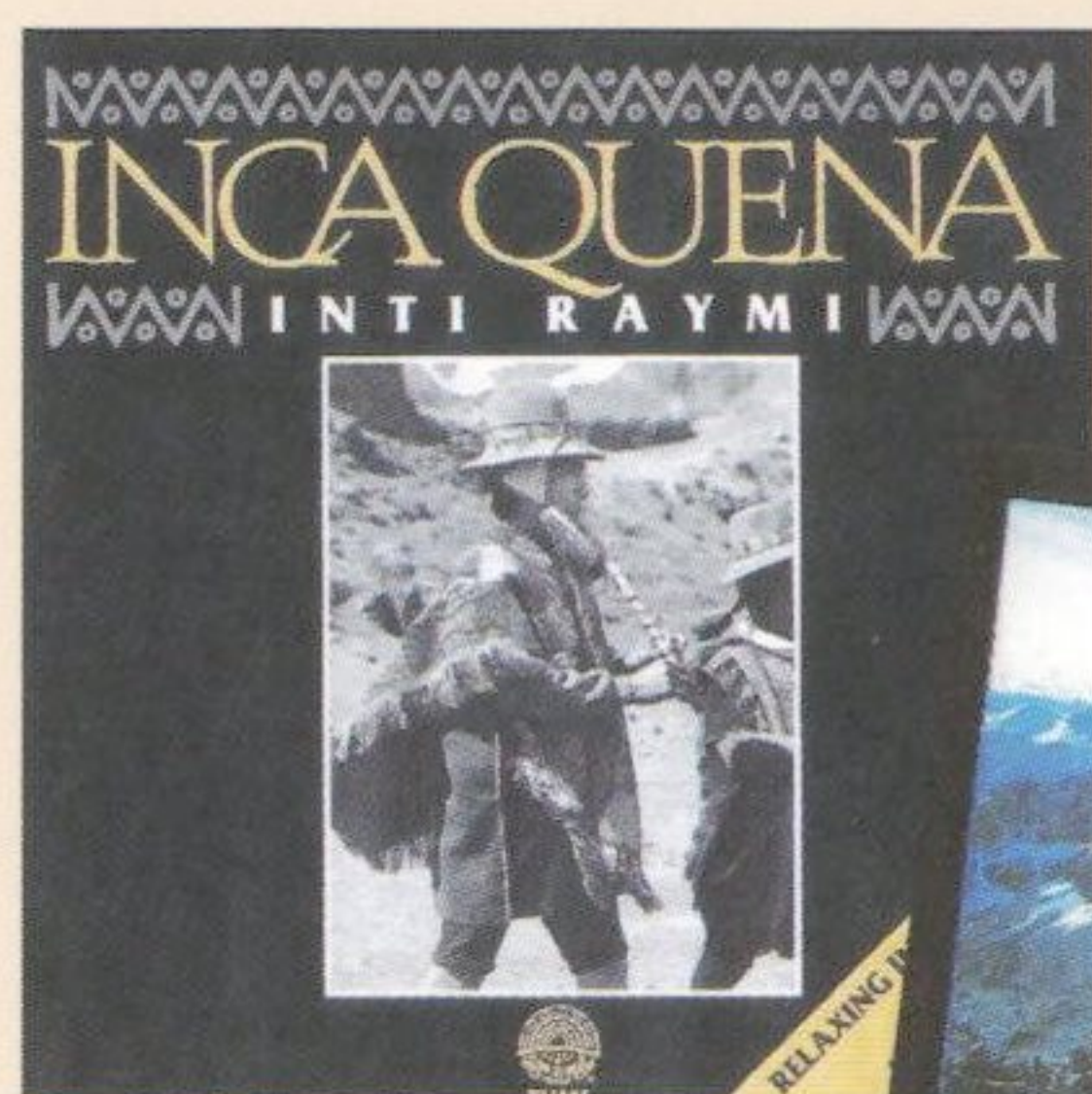
포근하면서도 거대한 자연의 선물 브라이스캐년도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더 많은 기억을 담아 올 수 있었다. 자연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던가. 거대한 자연의 선물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방문객들을 환영해주는 이곳 브라이스캐년은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있다. 자연이 품어주고 가르쳐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그곳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안데스 I

서글픈 바람의 노래, 안데스 음악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한 나라나 민족, 지역, 또는 하나의 문화가 지켜온 음악적인 전통이 담겨 있는 월드 뮤직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그 성격이 좌우된 예가 많다. 특히 다른 문화

에게 정복당한 역사를 경험한 지역의 음악은 그 '한'의 정서로 인해 음악적인 감동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월드 뮤직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데스 음악(Andean Music) 역시 찬란했던 잉카 문명을 정복당하고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만 했던 인디오들의 슬픔이 배어있는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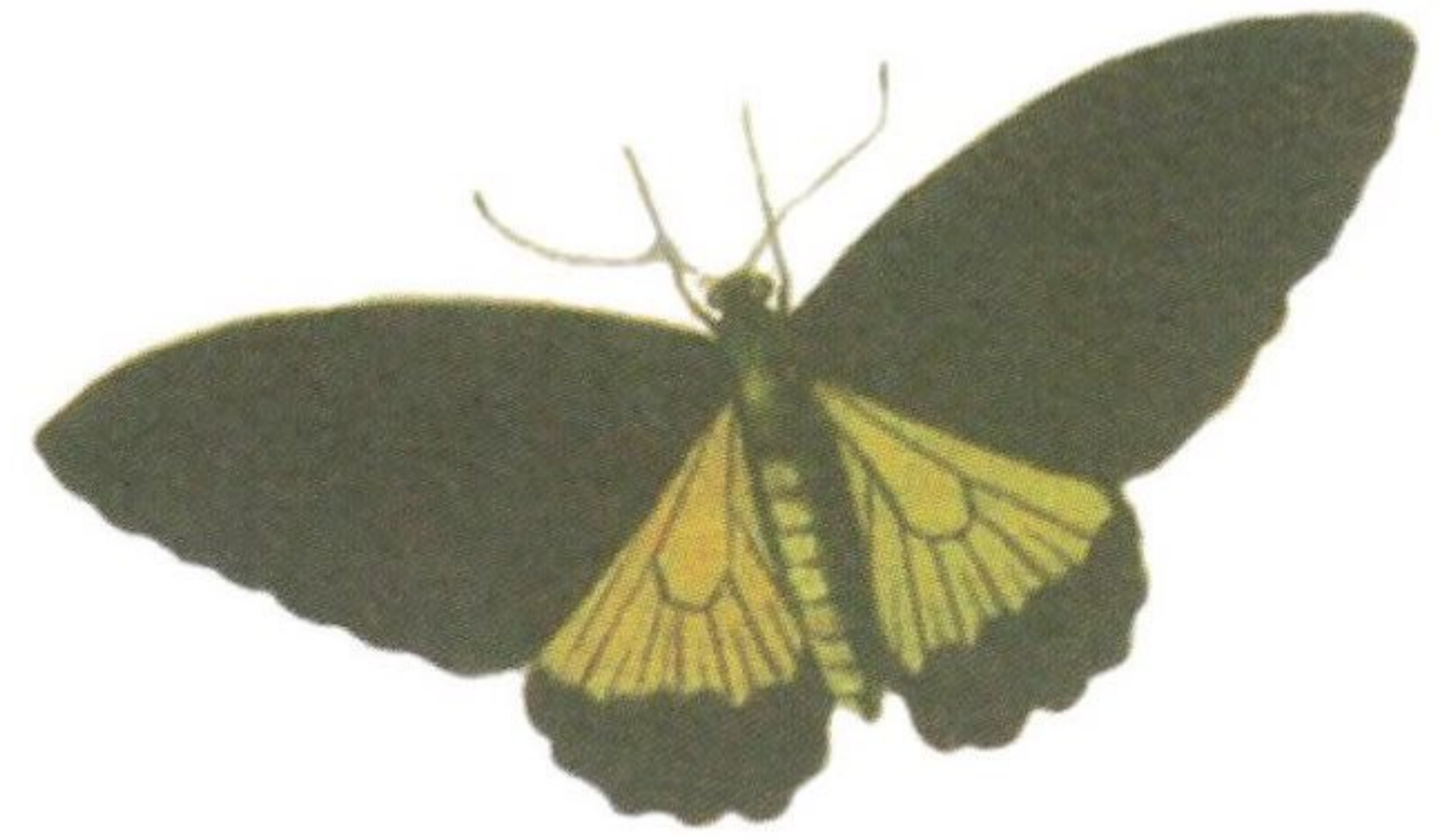
안데스 음악은 안데스 산맥에 잉카 문명을 일구었던 인디오들의 음악이다. 안데스 산맥은 남미 대륙의 서부를 종단하면서 북으로는 카리브해까지, 남쪽으로는 남극 바다와 닿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남미의 척추라고 불린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안데스 국가에 속한다. '안데스(Andes)'는 '하늘까지 계속되는 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안데스 산맥 일대에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잉카 문명이 이루어졌던 곳은 페루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정도이다. 잉카 문명은 12세기 경 현재의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티티카카(Titicaca) 호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카제국의 옛 수도인 쿠스코(Cusco)는 인구가 이십만이 넘는 큰 도시였고, 본격적인 정복 사업으로 인해 안데스 지역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한 학설에 의하면 그 척박한 고원에 일군 문명의 주인공들은 북미의 인디언들보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로 북방 몽골계인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찬란했던 문명은 신대륙 발견의 선봉에 섰던 스페인 정복자의 군대 앞에 허망하게 무너졌고, 16

세기에 잉카의 마지막 왕이 처형당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스페인의 식민 지배는 라틴 아메리카의 길고 어두운 고난의 역사로 이어졌다.

태양을 숭배하고 대지를 위대한 어머니로 여겼던 잉카 사람들에게 음악은 생활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감성표현의 도구였다. 또한 문자가 없었던 그들에게 음악은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기록의 수단이기도 했다. 때문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안데스 인디오들의 음악을 금지시키기 위해 갖은 탄압을 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인디오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오히려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온 서구의 음악어법을 자신들의 음악 속에 포용하고, 기타와 하프를 '차랑고(charango)'와 '아르빠(harpa)'라는 악기로 개량하여 안데스의 정서를 불어넣기도 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인디오들의 음악은 서구의 오만한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투쟁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 속에서도 되살아났다. 라틴 아메리카 민속음악 발굴의 선구자였던 아르헨티나의 '아따왈빠 유빵끼(Atahualpa Yupanqui)'와 칠레 민속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올레타 빠라(Violetta Para)'가 일생을 바쳤던 음악 속에 안데스 인디오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고, 아르헨티나 음악의 대모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가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들 속에도 안데스의 음악 전통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데스의 인디오들이 유럽 문화와 대면한 이후 살아 온 고단한 역사가 담겨 있는 안데스 음악. 안데스 산맥 주변 지역의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오들의 이 음악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잉카 문명이 몰락하면서 겪었던 오욕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서글픈 정서일 것이다. 식민 시대에 지녔던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지금까지도 짙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소박한 감성이 뒤엉켜 다른 어떤 지역의 음악에서도 느끼기 힘든 독특함을 담고 있다. 또한 그 감성이 담긴 선율을 연주하는 전통 악기들은 마치 안데스 고원을 가르는 바람 소리를 떠오르게 한다.

엘도라도를 꿈꾸는 영화 속의 위조지폐



채 경 हे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세계 최초의 지폐는 997년 중국 북송시대 사천(四川)에서 쓴 어음형식의 교자(交子)이다. 이후 중국은 1170년 남송시대에 지폐를 공식 발행했고, 몽고 쿠빌라이 칸의 시대에 와서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유럽은 17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폐가 사용되었으며, 일종의 예치증서로 오늘날 은행권의 모체가 되었다. 또 1644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은 손으로 그려진 은행권을 발행하고, 1716년에 프랑스는 당시 재상인 존로의 제안으로 은행권을 발행했다. 이 시기의 화폐도 별다른 문양(文樣)없이 금액과 상환조건 등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화폐는 점차 문자 위주에서 벗어나 인물, 자연경관, 건물 등이 소재로 등장하고, 금액을 표시하는 문자나 화폐의 윤곽 처리부분에 있어서도 화려한 장식문양들이 사용되어 실용적인 면과 시각적인 화려함을 잘 조화시켜 현대적 예술성까지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지폐의 변천사를 보면 판화기법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의 목판, 첩판, 석판에 의한 인쇄방식에서 벗어나 동판화기법이라고 부르는 요판(오목판화) 방식이 도입되어 보다 정교하고 미세한 인쇄가 가능하게 되고 복제는 어려워졌다. 특히 이 기법은 고도의 숙련과 함께 예술적 감성을 필요로 하므로 능력 있는 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지폐들은 이 시대 가장 뛰어난 판화기법의 산물이다. 지폐의 디자인과 판각, 그리고 인쇄기법은 각 국가별 발권 당국만의 특수한 기술이 되었다. 그래서 지폐는 문화와 기술력의 결집으로 소리 없는 외교관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영화 <카운터피터(위조지폐)>의 한 장면

19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소규모 은행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위조지폐의 준동이 시작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파운드화의 무력화와 전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화가, 사진작가, 인쇄기술자 등 각국의 포로들을 동원하여 수용소 특구에서 위조 파운드화를 찍어내 약 2년간 유통시켰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지폐의 약 50퍼센트를 위폐가 점유하게 되면서 전후 영국은 새 도안의 지폐를 발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2007년 오스트리아 영화 <카운터피터(위조지폐)>가 제작되었는데 2008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고, 2008 홍콩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이 영화는 베를린에서 '위조의 신'으로 불리던 유태인 화가 솔로비치가 체포되어 작센하우젠수용소에서 나치의 위폐 제작 프로젝트 '베른하르트 작전'의 책임자로 선발되면서 이



영화 <빠빠용>의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



영화 <빠빠용>의 나비 채집하는 장면

야기가 전개된다. 천부적 재능으로 수용소 동료들과 함께 동판은 물론 종이까지 제작하여 찍어낸 위조파운드화가 스위스은행과 영국에서 시험 통과되고 대량 생산된다. 독일의 해외거래자금으로 유통된 이 위폐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탄생하게 된 예술적 걸작인 셈이다.

한편, 위조지폐는 조직범죄 특히 마약이나 무기거래 등 '검은 돈'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갱 영화의 단골소재가 되었는데 일확천금, 물질만능 등 현대사회의 병리현상과 더불어 위폐범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자주 등장하였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할수록 그 영화 흥행은 성공적이었다.

위조지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영화 <빠빠용, 1973>은 실제 이야기다. 빠빠용(Papillon)은 프랑스어로 나비를 뜻하는데 살인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빠빠용(스티브 맥퀸)이 프랑스령인 남미의 섬 가이아나로 향하던 죄수선에서 프랑스 최고 위조지폐범 드가(더스틴 호프만)를 만나 탈출을 시도하는 내용이다. 드가가 위조한 국방채권을 구입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된 간수에게 찍혀 두 사람은 탈출이 불가능한 섬 '키홀 포티'로 보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미국인과 수용소 측의 뒷거래로 사역당하는 죄수들이 '파란 포퍼스 나비'를 채집한다는 것이다. 파란 포퍼스 나비날개에서 추출된 색소는 미국달러를 찍는 특수 안료로 사용된다. 빠빠용은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여 독방

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자유에의 꿈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악마의 섬' 벵랑에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 해류를 타고 탈출한다.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는 회한의 드가, 이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프랑스 영화 <마니 L'Argent, 1983>는 젊은 시절 화가였던 명감독 '로베르 브레송'의 유작으로 유명하다. 톨스토이의 중편 <위조지폐>를 모티브로 각색한 작품으로 범죄세계에 몰들어 가는 한 청년의 삶의 좌절을 그렸다.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한 장의 위조지폐를 통해 세계의 악을 지배하는 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한편,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한 핀란드 영화 <얼어붙은 땅>도 역시 비슷한 전개인데 위조된 500유로화 한 장으로 인해 퍼져가는 인간들의 비극을 부분적으로 알트만식 화법을 빌어 보여주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Catch Me If You Can, 2002>의 주인공 프랭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실존 인물로 FBI의 최연소 지명수배자이다. 미국에선 <반지의 제왕-두개의 탑>에 이어 흥행 2위에 올랐다. 16세에 가출한 만화광인 이 천재는 21살이 채 되기도 전에 팬암항공 부조종사, 뉴올리언스병원 레지던트감독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면서 신출귀몰한 범죄자로 살았다. 1964년에서 1967년까지 250만 달러의 위조수표를 유통시킴으로써 미국 내 50개주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26개국 경찰에 수배되었다. 4년간의 징역 후 1974년 출소하여 FBI금융범죄전담반에서 일하였으며, 현재는 아내와 세 명의 아들과 함께 미국 중서부에 사는데 1998년 CNN 파이낸셜 뉴스가 선정한 '성공한 400인'에 뽑혔다.

오늘날 통용되는 위조지폐의 약 2/3가량은 미국의 달러화이고 그 외 독일의 마르크,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등이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위폐 적발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중 5,000원 권의 비중이 크게 늘어 예사롭지 않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화폐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며, 지폐인쇄, 제지 및 주화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으로 우리의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부산의 대학로를 꿈꾼다

소극장 초콜릿 팩토리



부산에 새로운 소극장이 문을 열었다. 이름만으로도 톡톡 튀는 '초콜릿 팩토리'.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인 친밀한 공간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초콜릿 팩토리'의 바람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

지난 5월 9일 개관한 소극장 '초콜릿 팩토리'는 서울지역 기획사인 (주)가을엔터테인먼트와 (주)아츠플레이가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주)가을엔터테인먼트는 연극배우 故 추송웅 선생의 아들인 추상욱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로, 그동안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강풀의 순정만화2-바보', '커피프린스 1호점', '플리즈' 등 창작극을 제작해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올려왔다. 최근 이들 작품과 함께 부산을 찾은 추상욱 대표가 365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 대학로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소극장 문화를 아쉬워하던 중 서울에서 아츠플레이씨어터를 운영하는 (주)아츠플레이와 손을 잡게 되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추상욱 씨는 앞으로 부산에서 뮤지컬 전용극장 개관도 계획하고 있다.

소극장 '초콜릿 팩토리'는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자리한 대학가 인근 산암빌딩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인근 부산문화회관, 부산 박물관, UN조각공원 등 문화공간과도 근접해 있어 다양한 관객층의 발길이 기대된다.

“연극애호가들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소극장의 문턱은 높다”는 초콜릿 팩토리 기획실장 김희경 씨. “일부러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다 언제나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길 바란다”는 그는 무엇보다 관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총 164석의 객석은 경사를 두어 뒷 좌석 관객이 공연관람을 하는데 시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여타 소극장과는 달리 개별 등받이가 마련되어 있다. 노란 벽지와 꽃분홍의 화사한 테이블, 의자로 시선을 우선 사로잡는 관객 대기실은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주요 공연들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초콜릿 팩토리에서는 앞으로 개관기념공연인 연극 ‘그 남자 그 여자’를 시작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올려져 호평받았던 다양한 창작극을 연극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산지역 극단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제작한 레퍼토리를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전용소극장을 갖지 못한 극단에게는 대관을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연이 없는 낮공연은 ‘아동극’을 적극 유치하여 ‘언제라도 그 곳에 가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초콜릿 팩토리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타 극단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초콜릿 팩토리가 마련하겠다”는 김희경 실장은 “부산지역 다른 극단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극장 붐을 일으키겠다”는 열의도 가지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장장 4개월간 장기상연에 들어가는 개관기념공연 ‘그 남자 그 여자’는 대학생 커플과 직장인 커플의 만남에서부터 설렘, 사랑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부산에서 두차례 공연되면서 부산의 연극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품으로, 이번 개관기념공연에서는 ‘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초콜릿 팩토리의 바람에 따라 관람료를 낮추는 다양한 할인이벤트를 펼치기도 했다.

■ 문의 : 초콜릿 팩토리(621-4005)

〈글/정복엽〉



164석의 객석을 갖춘 초콜릿 팩토리는 초콜릿 처럼 달콤하고 친밀한 공간을 추구한다.



음악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에버그린 앙상블



아름다운 선율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에버그린 앙상블. 지난 2007년 6월 창단한 에버그린 앙상블은 그동안 장애인,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사랑의 음악회를 펼쳐오고 있다.

에버그린 앙상블은 부부음악가인 바이올리니스트 한동송, 플루티스트 정혜리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한동송, 정혜리 씨의 딸 예은이를 포함해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1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 모두가 학생이라 토요일 무인 놀토를 이용해 격주로 모임과 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유학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위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한동송, 정혜리 부부.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7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4년 귀국한 한동송, 정혜리 부부는 유학시절 스스로에게 약속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에버그린 앙상블을 결성했다.

“단원들 대부분이 악기를 잡은지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아마추어 연주자인데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라 출발이 쉽지 않았다”는 한동송 씨. 그러나 지난해 6월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사랑의 음악회를 가져오면서 이웃사랑과 더불어 단원들의 연주실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에버그린 앙상블의 첫 연주회는 장애시설인 영광재활원에서 열렸다. 마침 그 날이 단원들의 시험기간이라 고민이 많았지

만, 정작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무사히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다.

“장애인들에게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지만, 스스럼없이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정혜리 씨. “몸이 불편해 항상 누워 지내시던 분이 저희 연주회를 듣고 그날 처음으로 웃으셨다는 자원봉사자의 귓뜸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는 그는 새삼 음악의 힘과 감동을 느꼈던 첫 연주회를 잊지 못한다.

에버그린 앙상블은 지난 5월 10일에는 평화노인건강센터를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24일에는 장애인시설인 베데스다원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 첫 정기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앙상블의 음악봉사활동을 우연히 알게된 엄마의 권유로 지난 연말부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재송여중 2년). 연주회가 있는 날이면 엄마인 강나경 씨도 팔을 걷어부친다. “에버그린 앙상블 활동을 통해 딸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는 강나경 씨는 딸의 이런 봉사활동이 대견하기만 하다.

“악기가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한정되다 보니 보다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 악기 연주자들도 참여시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이라는 한동송 씨. 앙상블 활동이 알려지면서 연주회 요청도 많아졌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게 아쉬울 따름이라는 그는 앞으로는 단원 수를 늘려 지금보다 자주 연주회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에버그린 앙상블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이다.

■ 문의 : 에버그린 앙상블 한동송(010-3166-6861)

〈글/정복엽〉

고음악 연주의 기수들 4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조르디 사발 (Jordi Savall, 비올)

1941년, 스페인의 이구알라다(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6살 때 고향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노래하면서 음악에 입문했다.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첼로를 전공했고, 1965년에 졸업과 동시에 비올라 다 감바 같은 잊혀진 고악기를 통해 옛음악을 부활시키는 한편,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의 음악적 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68년부터 스위스 바젤의 스킨라 칸토룸에서 활동하면서 1973년에는 스승인 아우구스트 벤징거(August Wenzinger)의 교수 직위를 승계 하였다.

1970년 이후부터 독주 음반을 녹음하기 시작한 사발은 비올라 다 감바를 위한 명곡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가장 권위 있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잊혀진 옛 작품들을 연구하는 한편 1974년부터 다수의 앙상블을 창단하여 중세부터 19세기까지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연주하였다. 그의 아내인 소프라노 몽세라 피구에라스(Montserrat Figueras)와 류트 연주가 홉킨슨 스미스(Hopkinson Smith), 로렌조 알페르트(Lorenzo Alpert) 등과 함께 결성한 '에스페리옹(Hesperion XXI)' (1974), '카탈라니아의 실내음악(La Capella Reial De Catalunya)' (1987), '나시옹 콩세르(Le Concert Des Nations)' (1989) 등을 창단하여 이들과의 연주를 통해 생생하면서도 역사적 정확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일찍이 옛음악의 선도적 연주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전세계를 순회하면서 년평균 100여회의 연주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라틴 아메리카, 중동, 극동,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25개국의 주요

옛음악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고 있다.

고음악계의 거봉인 연주자 사발은 또한 같은 세대의 음악가 가운데서도 활동분야가 가장 다양한 예술가로 꼽힌다. 비올 연주가이자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음악감독이며, 제작자, 교육자, 음악학 연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옛음악을 재평가하고 부활시키는 금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추앙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르누(Alain Corneau)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7개의 세자르상을 수상하였다)을 통해 옛 음악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사발에게 그의 예술적 능력과 공로를 치하하는 많은 직함과 상이 주어졌다. 1988년 프랑스 정부는 <예술과 문화 훈장>을 주었고, 카탈로니아 정부는 1990년에 <성 조르디 십자가>, 1998년엔 <예술 금메달>을 주었다. 1999년엔 빈 콘체르트하우스의 명예회원이 되었다. 벨기에의 루뱅 대학교는 명예박사 학위를 주었다. 또한 100여장이 넘는 음반을 내어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에 사발은 자신의 레코드회사 ALIA VOX를 만들어 그가 제작한 음반의 판권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18개의 음반을 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것들은 <세상의 모든 아침- 그후 10년>, <오스티나토>, 비발디의 오페라 <페르나체>, 윌리엄 로스의 5성, 6성 콘소트, 마랭 마레의 <루이 14세의 오케스트라>와 비올곡집 제2권(1701), 생트 콜롬브(Mr. De Sainte Colombe le Fils)의 비올곡집 등이다. 사발은 2003년 10월에 서울에서 연주회를 가진 이래 한국 무대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2005년 봄 시즌엔 '통영 국제음악제' 출연을 비롯해서 서울, 안산 등지에 '에스페리옹 21' 과 연주했다.



2008 김정순 발레 50년

대극장 6월 2일 월요일 오후 5:00, 7:30
6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싹발레단을 창단, 발레 꿈나무를 양성하며 발레 대중화에 힘써온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의 발레 50주년 기념 무대.

8세에 발레에 입문한 김정순 교수는 한양대학교 졸업 후 국립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부산으로 내

려와 부산에서 후학들을 지도해왔다. 해외 발레단과 교류함으로써 한국의 발레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김정순 교수의 발레 인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이 함께 무대를 갖는다.

작품

첫째날 2일(월)-보은의 꽃 전 3장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을 삶의 오금과 굴신을 통해 표현한 작품.

· 안무/김정순

· 출연/강아름, 강정훈, 김동석, 김미경, 김명심, 김선영, 김수희 외

둘째날 3일(화)-스승을 빛낸 제자들

파리의 불꽃(출연/남영, 이유하) 세헤라자데(출연/조재욱, 최윤정)

해적(출연/김진권, 최희윤) 돈키호테(출연/이원국, 이지영) 등

- 관람료 2일 일반 15,000원 · 학생 8,000원
3일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사랑티켓 적용)
- 문 의 김정순(017-572-9991), 예술기획(0505-700-9798)

독거노인 돕기 자선공연 춤다래무용단 '참 좋은 인연'

6월 1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0년 10월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자선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을 찾아 뜻있는 봉사활동을 펼쳐온 춤다래 무용단의 독거노인 돕기 자선공연.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시립무용단 단원을 지낸 춤다래 무용단 단장 최준옥의 안무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검무, 민요춤, 살풀이춤, 허튼춤, 산조춤, 비손무

· 안무/최준옥 · 연출/최준명

· 찬조 출연/최준명(단춤 댄스드라마 컴퍼니 대표, 극단목화 상임안무가)

· 연주/풍물연희단 매구, 강신일(뽕가리), 송민재(징), 이현지(장고), 이복남(북), 김용성(태평소)

관람료 무료

문 의 춤다래무용단(<http://cafe.daum.net/chumdare>
010-6328-6362, 011-9543-8455)

제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

6월 3일-5일 화-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전국의 창작국악관현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제 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8.

올해는 영남권 지역의 경상북도립국악단, 중부권 지역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 3개 단체가 참여하여 새롭게 만든 우리음악을 수준 높은 연주력으로 선보인다.

■ 6월 3(화) 경북도립국악단

프로그램

박정덕(사물구성)/북소리

이준호/관현악 '동천(東天)'

박범훈/무용과 관현악 '여명의 빛'

개그판소리 '심봉사 놀다 歌' 등

· 지휘/김만석

· 협연/이성원(거문고 · 경북도립국악단 악장), 박정덕(경북도립국악단 타악수석), 김희경(안무 · 경북도립국악단 무용수석), 김수희, 조경재(소리 · 경북도립국악단 단원)

■ 6월 4(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프로그램

이금섭/관현악 '셋강의 소리'

황의중/관현악 '통일 그 날이 올 때까지!'

황병기(편곡/지원석)/달하노피곡

임진옥/관현악 '청성곡 협주곡' 등

· 지휘/임진옥(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 지휘자)

· 협연/신용재(대금 · 목원대 교수), 민의식(가야금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오지영, 김미숙(남도민요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단원), 김소희(노래)



부산시립극단 제 32회 정기공연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소극장 6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6월 6일-7일 금-토요일 오후 4:00

부산연극제에서 '인류 최초의 키스'로 대상을 수상한 연출가 오정국의 객원 연출로 선보이는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갈림길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유희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감동의 휴먼 드라마이다. 1997년 초연된 이 작품은 화장터에서 연기가 되기 직전의 두 영혼이 이승을 하직하면서 나누는 진솔한 우리네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연출가 오정국은 1989년 극단 '현장의 <유리동물원>에 출연하며 배우로 연극과 인연을 맺은 뒤 2001년부터 연출가로 변신, 그동안 극단 시나위 '펠리칸' '왕자' '검정고무신' '인류 최초의 키스' 등을 연출, 호평받았다.

· 작/쓰쓰미 야스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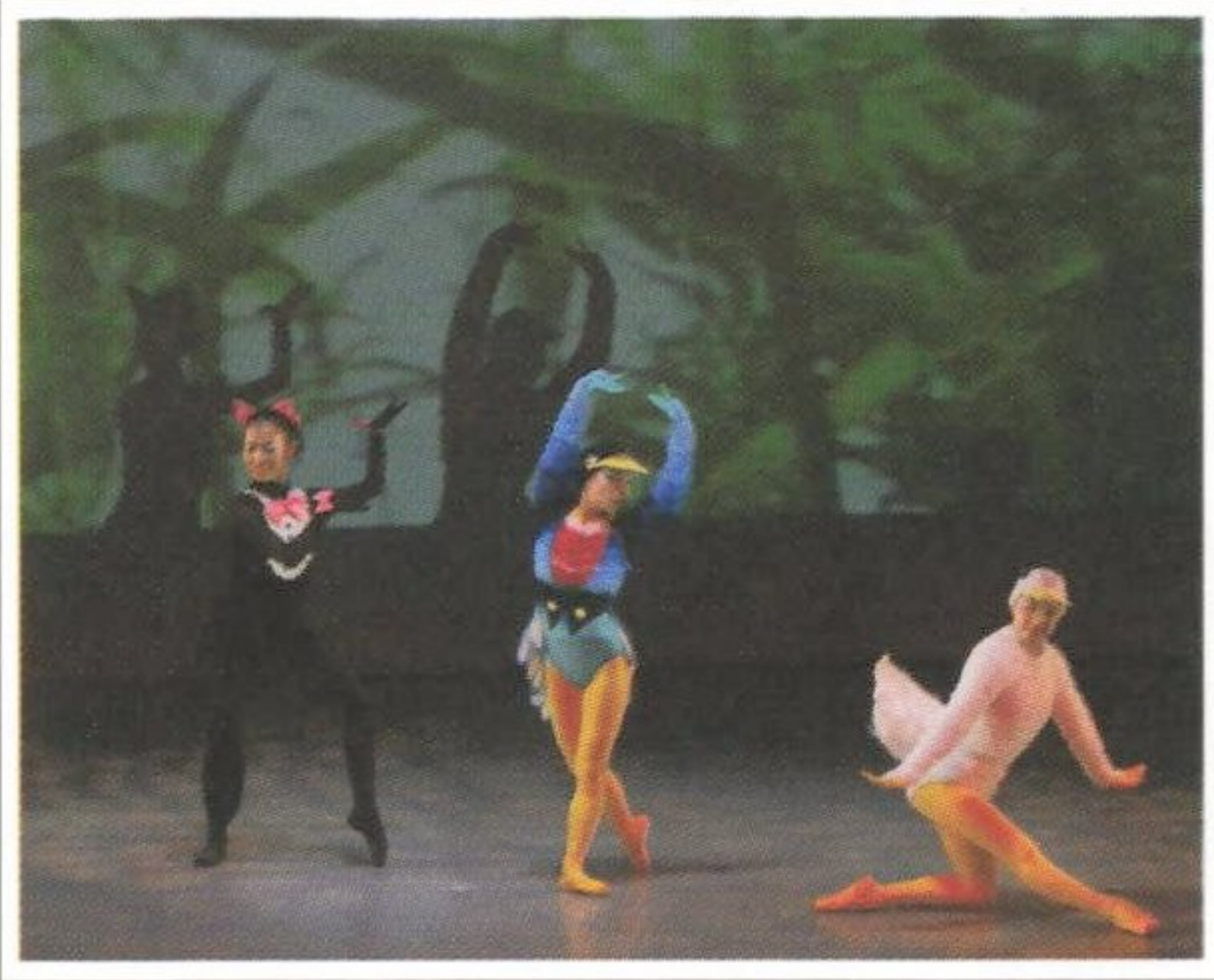
· 번역, 각색/김순영

· 연출/오정국

출연

김은희, 박찬영, 백길성, 백상희, 엄준필, 염지선, 유성주, 이돈희, 이혁우, 이현주, 임해련, 정행심, 황창기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신정희 발레단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영어해설이 있는 발레 '피터와 늑대'

중극장
6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6월 8일 일요일 오후 3:00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30, 11:30

발레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신정희 발레단에서 선보이는 어린이를 위한 발레극 '피터와 늑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이 작품은 러시

아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순수음악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작곡한 '피터와 늑대'를 발레로 재구성 했다.

지난해 한차례 '피터와 늑대'를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받은 신정희 발레단은 이번 무대에서 환상적인 매직과 함께 작품에 대한 영어해설, 사실감 있는 배경 영상, 피터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을 표현하는 발레를 보여 줄 예정이다.

- 총예술감독/신정희(경성대학 교수)
- 지도/정두순
- 마술/조영웅

출연

안유리, 최연순, 최소정, 이세진, 백순선, 최우석, 김수현, 김서은 외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시즌 3

대극장
6월 6일 금요일 오후 5:00, 8:00
6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6월 8일 일요일 오후 2:00, 5:00

2006년 6월 초연 이후 같은 해 12월 시즌2를 거치기까지 총 225회 공연 동안 93% 객석점유율을 기록한 화제의 뮤지컬 김종욱 찾기 시즌 3 부산 무대.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여우주연상(오나라)과

남자인기상(오만석) 수상, 제1회 더 뮤지컬어워즈에서 남우조연상(전병욱)과 작사/극본상(장유정), 남자인기상(오만석), 여자인기상(오나라)을 모두 거머쥔 '김종욱 찾기'는 2006년 인터파크 네티즌이 선정한 2006 최고의 창작뮤지컬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화제의 작품이다.

첫사랑을 찾아주는 대행사를 운영하는 바른생활 사나이와 7년 전의 첫사랑을 찾아 나선 의뢰인이 펼치는 티격태격 로맨틱 코미디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 연출/김지연 · 음악감독/정준
- 극작, 작사/장유정
- 작곡/김혜성

출연

김재범, 김무열, 성두섭, 오나라, 안유진, 김지현, 임기홍, 진선규

-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주)AN시티(1644-4484)

6월 5(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프로그램

백규진/화랑(2005년 위촉곡)

진규영/low-voice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문열어라' (2006년 위촉곡)

강봉천/25현 가야금을 위한 국악관현악 협주곡 '절영의 전설' (2005년 위촉곡) 등 수곡

· 지휘/박호성

· 협연/신은주(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 최영수(베이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신문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닥터스빅밴드 제 7회 정기연주회

6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음악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 닥터스 빅밴드가 들려주는 제 7회 정기연주회.

닥터스빅밴드는 1999년 부산, 경남지역의 의사 20여명과 음악전공

자들로 결성되었다.

프로그램

Signal music The loco motion, Big Band On broadway, Barbara Ann, Abba Gold, 골목길, 아쉬움, 나그네 옛 이야기 등

· 단장/박경모 · 지휘/정흥기

관람료 초대

문의 정흥기(016-561-6047), 대동병원 부속실(550-9329)

사물놀이 30주년 기념 藝風 Since 1978 소극장 투어 공연

6월 10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1978년故 김용배,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이 창시한 사물놀이 30주년을 기념해 창단 당시의 예술적 열정을 기억하며 마련하는 사물놀이 전국 투어공연. 사물놀이 창시자, 예인 이광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민족음악원 예술단원들이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와 기교와 멋이 담긴 복합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출연

이광수, 이영광, 유인상, 손경서, 임수빈, 권지훈, 신희선, 함주명, 이호용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사)민족음악원(231-3313, 010-9124-862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대극장 |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00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여성, 주부들을 위한 맞춤 공연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6월 무대.

무대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유쾌하고 재치 있는 해설로 풍자와 기지가 가득한 관현악곡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으로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난다.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음악성,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흡인력 있는 연주로 국내외 무대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정원과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최유진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 생상/동물의 사육제
- 하이든/교향곡 제45번 '고별'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협연/서정원 & 최유진(피아니스트)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뮤지컬 실연남녀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중극장



브라운관과 뮤지컬계를 넘나드는 최고 배우들의 출연으로도 화제를 낳았던 뮤지컬 실연남녀 부산무대.

심장마비로 죽은 산장주인을 대신해 '아트 퓨처산장'을 경영하고 있는 어리버리 조폭 형제가 자살을 하기 위해 찾아온 여자 손님 지아와 남자 손님 연오의 자살을 막기 위해 펼쳐는 자살 방지 프로젝트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 작/오은희 · 연출/김장섭

출연

신성록, 성민, 손광업, 강지우, 양소민 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4484)

제 6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UKO)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6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전문연주자와 아마추어연주자들이 창단한 UKO가 들려주는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프로그램

- 프로코피에프/로미오와 줄리엣
- 레스피기/로마의 소나무
- 데이비드 맨시니/드럼협주곡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박철우(드럼), 이은정(피아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 의 정희재(011-589-3111)

멜로매니아 제14회 정기연주회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의사, 교수, CEO, 대학총장,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남성 성악동호회 멜로매니아가 들려주는 제 14회 정기연주회.

1994년 9월 창단된 멜로매니아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아마추어 솔리스트 동호회로 매 연주마다 나이를 잊은 열정의 멜로디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최창권/살짜기 읊서예



부산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126회 정기연주회 나의 조국 그리고 하이든의 "전시미사"

대극장 |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은 이 땅, 조국을 지킨 선열들을 위해 마련하는 제 126회 정기연주회.

1부는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조국을 생각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는 '내 나라 내 겨레', '우리의 작은 섬' '이 땅은 너의 땅, 철망 앞에서' '조국(Homeland, G.Holst 곡, 편곡 Z.Randall Stroope)'을 선곡, 조국의 아름다움과 주어진 현실, 그리고 내 나라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하고 2부에서는 하이든(J.Haydn 1732~1809)이 나폴레옹군의 위협에 대한 분노의 표명 '전시의 미사(Mass in Time of War)'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나의 조국/내 나라 내 겨레(편곡 백현주), 우리의 작은 섬(이현철 곡), 이 땅은 너의 땅, 철망 앞에서(편곡 백현주), 조국 (Homeland, G.Holst 곡, 편곡 Z.Randall Stroope)
- 하이든/전시미사 제 9번 다장조
- 지휘/김강규
- 솔로/소프라노 최훈녀, 알토 강희영, 테너 김지호, 베이스 서관수
- 피아노/이경미, 이승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송승환 브로드웨이 뮤지컬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대극장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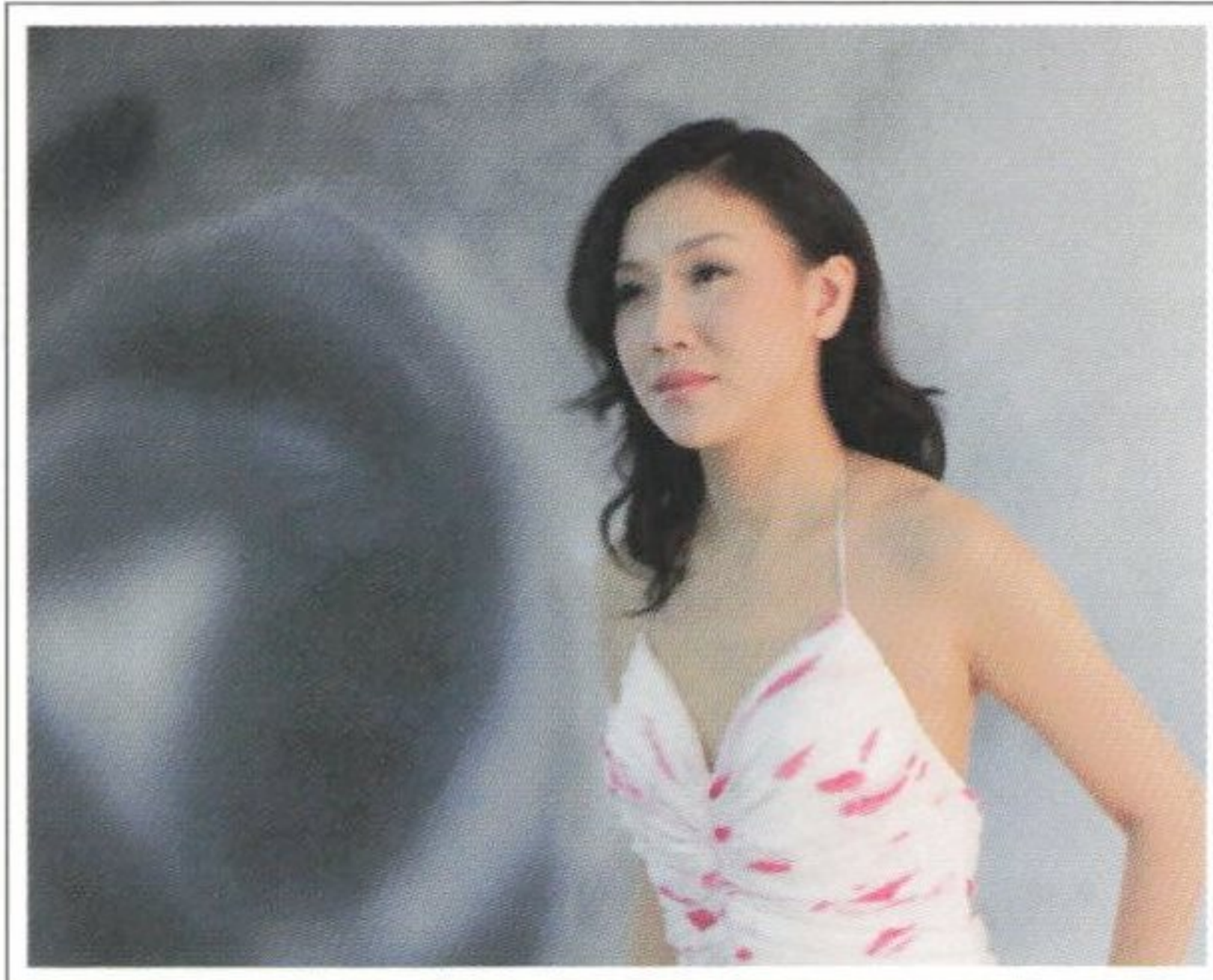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 부산무대.

1997년 10월 초연 이래 한국 공연 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세계 무대에서 격찬받고 있는 난타는 그동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하여 작품성을 높여왔다.

칼과 도마 등의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 깜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쌔기,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무, 가슴이 뻥 뚫릴만큼 시원한 엔딩의 드럼연주 등으로 구성되는 '난타'는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난타는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이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대만 등 총 25개국 206개 도시 공연을 가졌다.

-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에스엠기획(1544-1884)



6월 한낮의 유(U:)콘서트 팝페라 가수 로즈와 함께하는 클래식과 팝의 만남!

대극장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팝페라 가수 로즈(Rose)과 함께 하는 국제신문 유콘서트 25번째 만남.

오페라 아리아에서 팝페라, 뮤지컬과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내고 있는 재미동포 팝페라 가수 Rose는 4살부터 피아노와 노래를 시작, 전 세계인들로 부터 '천사의 노래'로 극찬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로즈는 스미스 여자 대학을 졸업하고, 콜럼비아, NYU, AMDA, 런던대학, 줄리아드를 수료한 재원으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약 후, 모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2년전 귀국했다. 지난해 반기문 UN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공연을 벌인 로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전야제에서 축하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유콘서트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맘미아, 시카고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로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 관람료 전석 15,000원(국제신문구독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회원 30% 할인)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롯데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등 출연

테너 김덕영, 최성협, 오거돈, 바리톤 한성권, 민정식, 테너 석동호, 원요한, 버리톤 김성홍

· 성악지도/박광하 · 반주/곽윤희

· 특별출연/조은비

관람료 초대

문의 김성홍(011-9543-9378)

대한민국 - 우크라이나 교류 음악회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6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33년 창단, 75년의 역사를 가진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 부산연주회.

우크라이나 음악계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악단으로 평가받고 있

는 프로코피에프 필하모니는 실내악단 '비올라'와 목관 4중주의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민속악단 '멜로디'와 재즈 그룹 렌트가 뛰어난 기타리스트 등 300여명의 우크라이나의 많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왈츠

생상스/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Kv 488

쇼팽/피아노 협주곡 등

· 바이올린/송선혜 · 피아노/유현주, 최혜영

관람료 VIP 30,000원 ·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오페라소사이어티(010-9798-9434)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번째 발표회 만학(晩學)이여 이제는 만학(萬鶴)되어 날아오르다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춤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이 엄옥자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마련하는 무대.

프로그램

북춤(승전무), 살풀이, 태평무, 붉디 붉은, 검무(승전무), 만학되어 날아오르다, 승무

· 총 예술감독/엄옥자

관람료 R석 15,000원 · A석 10,000원
B석 7,000원

문의 부산대학교(510-2715)



오충근 김지연 김덕수

KNN 창사13주년, BN그룹 창사 30주년 BN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대극장 |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음악을 통해서 시민과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펼쳐는 대한민국 기업 사랑 음악회.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창사 13주년 특별

기획, BN그룹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의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와 함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호흡한다.

프로그램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강준일/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스트라빈스키/불새

보로딘/폴로베츠인의 춤 등

- 지휘/오충근
-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김지연(바이올린), 김덕수(전통예능인)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1577-76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클래시컬 Fantastic 'Rhythm & Dance'

6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시민클래식 교실과 부산문화대학의 명강의로 음악애호가들의 더 많은 사랑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세계무대를 빛낸 한국 영화음악의 거장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클래시컬 Fantastic 'Rhythm & Dance'.

프로그램

투리나/환상적 무곡 작품 22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피아졸라/탕가조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교향적 무곡'

· 지휘/이동신 · 협연/이병우(기타리스트)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전한나 피아노 독주회

6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경성대학교 대학원에 제학 중인 전한나의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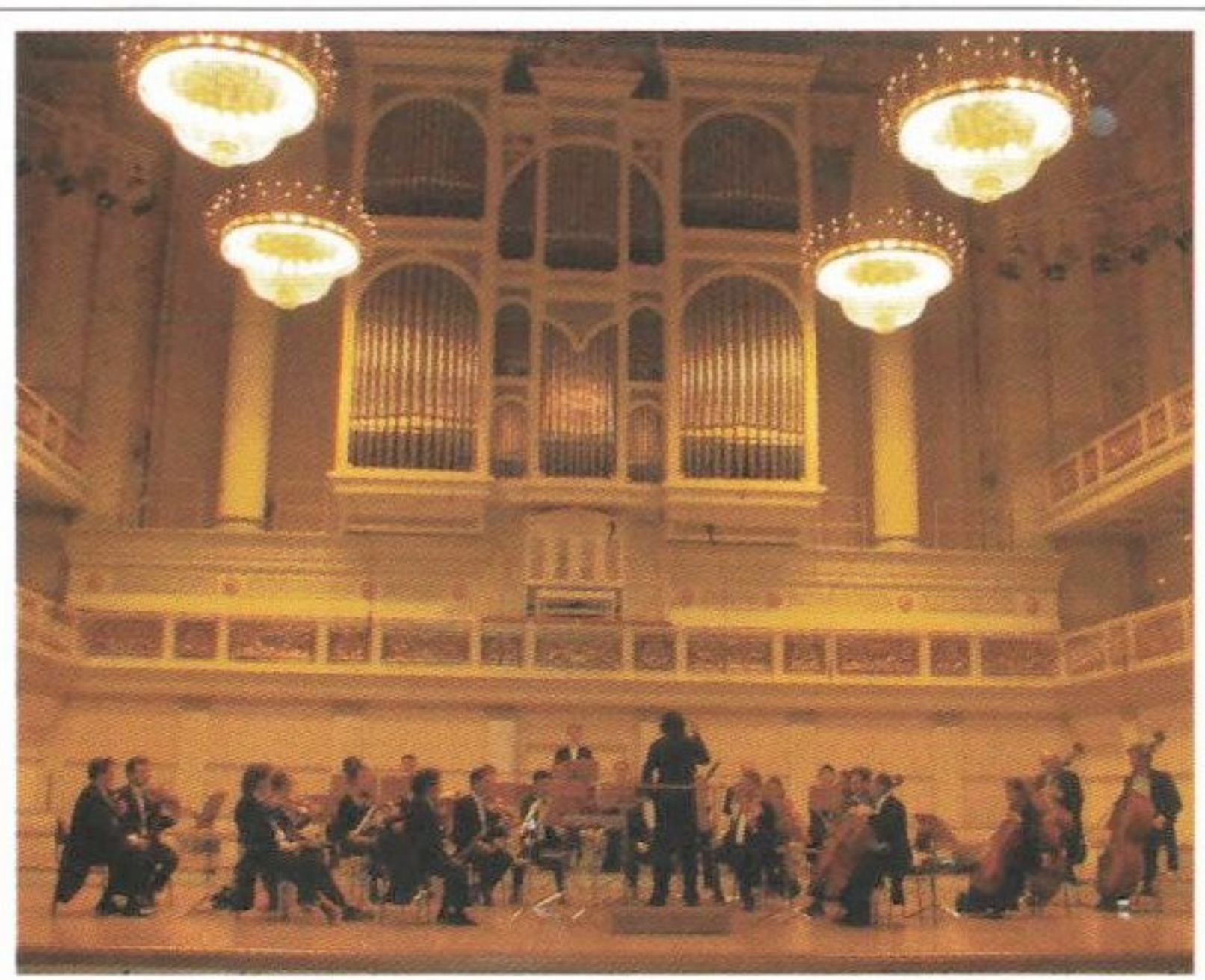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라장조 Hob XVI:19

쇼팽/발라드 작품 23 제 1번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독일 함부르크 신포니에타 순회연주회 - 부산

대극장 | 6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1987년 뉴 함부르크 필하모닉의 악장으로 활약 중인 티그란 미카엘얀(Tigran Mkhaelyan)과 그 주변의 전문 음악인들 25-30명으로 결성된 이래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하여 많은 실내악 활동을 가져온

독일 함부르크 신포니에타의 부산연주회.

1999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재창단되어 챔버 앙상블 또는 신포니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신포니에타는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주회를 갖고 있다. 이번 신포니 오케스트라 25명은 루엔베르크 스테이트 극장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우르스 미하엘 테우스(Urs-Michael Theus)와 함께 내한하여 독일의 정통음악과 왈츠와 폴카 등으로 경쾌한 초여름의 밤을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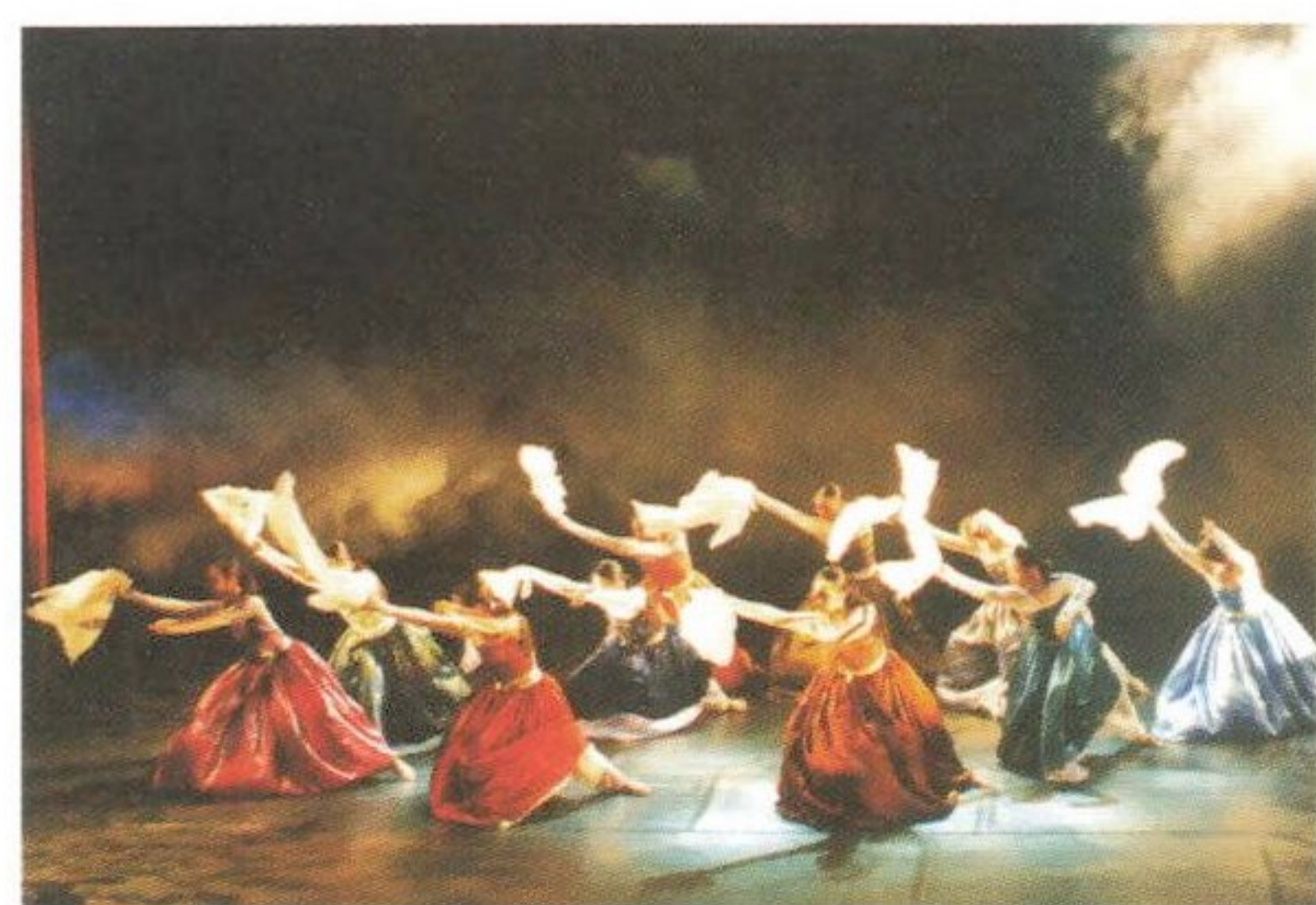
- 지휘/우르스 미하엘 테우스
- 협연/백원석(바이올린 · 부산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동래구 여성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신나영(바이올린 · 부산예고, 동의대 출강), 박미은(피아노 · 동의대, 고신대 출강), 원영아(피아노 · 울산대, 신라대 출강)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633-8990)

원향(遠香) 엄옥자 정년퇴임기념 대 춤판

6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자 선생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대 춤판.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을 수상한 엄옥자 교수의 춤 인생을 표현한 부산대학교 김정자 시인의 시를 대본으로 그동안의 춤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대학교 교수,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 제 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 부산광역시 문화재 위원,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원향 엄옥

프로그램

1막, 바다도 춤을 춘다-유년의 꿈은 피어나고
2막, 통영 북소리, 내사랑 승전무-청춘의 숨결이어
3막, 봉황의 비상飛翔-내 눈이 열리고
· 총괄안무/엄옥자(부산대학교 교수)
· 대본/김정자(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출/김희광(공간대표)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510-2715, 010-9394-6248)

제6회 아르스 현악 4중주단 정기연주회 -슈베르트의 밤-

6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리더, 신라대학교 교수), 김희정, 비올리스트 이성호(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첼리스트 하경희, 피아니스트 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 4중주단 정기연주회.

2001년 창단된 아르스 현악 4중주단은 그동안 5회의 정기연주회, 부산 MBC '목요음악회', 음협 실내악 축제 연주('01~04), 봉생병원 '환우를 위한 음악회' 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죽음과 소녀
슈베르트/송어
· 특별출연/박희철(콘트라베이스)
관람료 초대
문의 정희재(011-589-3111)

윤지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6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미네소타주립대학교와 일리노이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윤지은 귀국 독주회.

윤지은은 유학 중 Ellinor Bell Fellowship Competition 2위, University of Illinois Concerto Competition, 21st Century Piano Composition

Competition 우승,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올림 다단조 BWV 849

라벨/밤의 가스파르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 959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3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 부터'

6월 29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의욕적인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민간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33회 정기연주회.

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한 피아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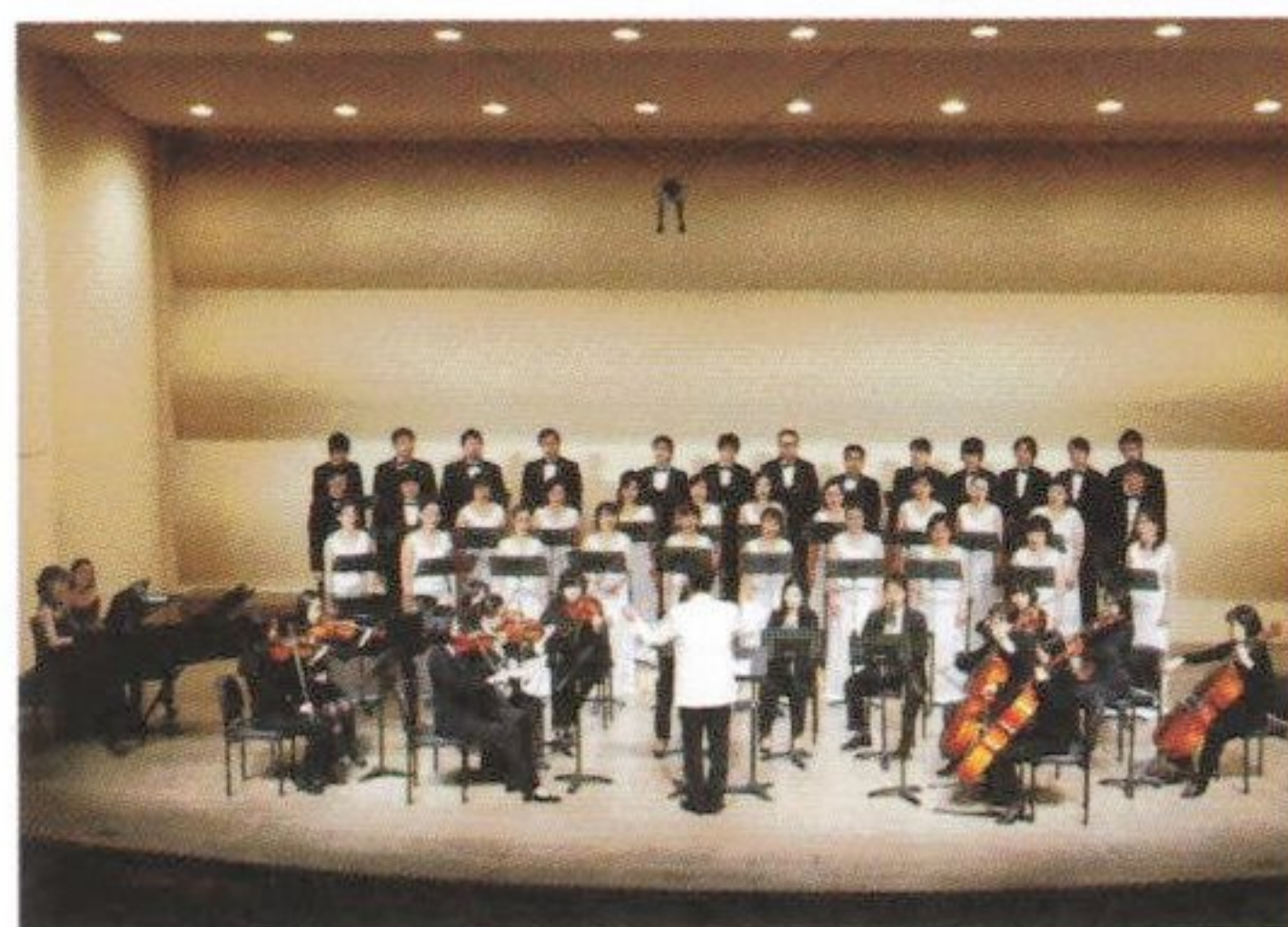
트 김용배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그리그/피아노협주곡
드볼작/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제 9번
· 지휘/박종휘
· 협연/김용배(피아니스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017-842-6688)

코람데오 카펠라, 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6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7년 5월, 작곡가이며 합창지휘자인 황장수가 성악전공자들과 함께 창단한 코람데오 합

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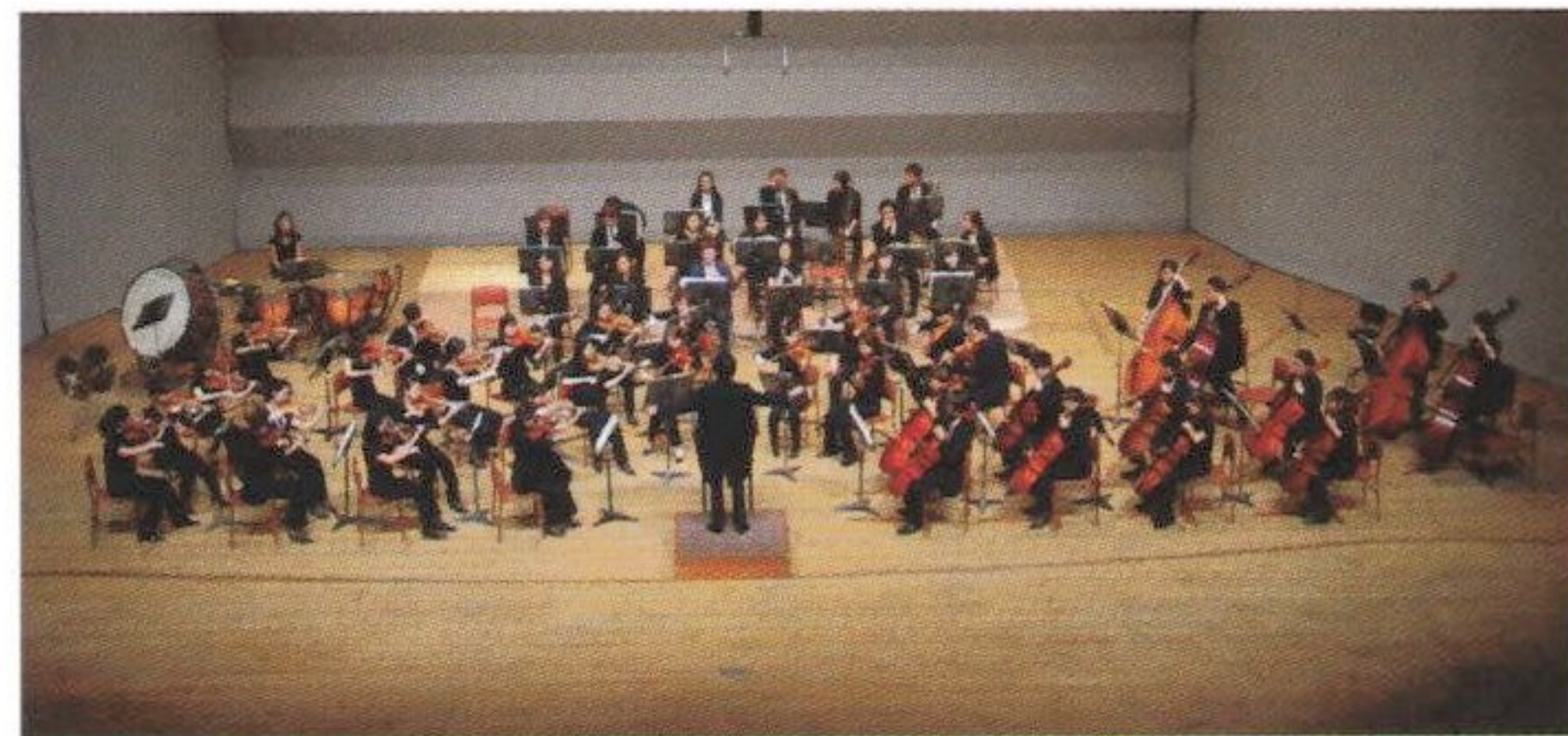
합창 연구와 정기 발표회를 통해서 합창음악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코람데오 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는 지난해 8월 부산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부산, 경남, 울산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청 시범연주를 시작으로 작곡그룹 부산창작합창21의 신작합창발표(금정문화회관), 고신대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초청 송년음악회 등의 무대에서 음악 애호가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John Rutter 성가. 아프리카 민속성가, 우리가곡, 크로스오버 합창과 실내악 연주
· 지휘/황장수 · 피아노/심은정. 문지선.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황장수(645-0425, 010-7309-517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 연주자들이 펼치는 '제 7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프로그램

치마로사/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사장조 중 1악장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5번 가장조 작품 219 '터키'
하이든/첼로협주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101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이지현(부산대 3년, 플루트), 박소담(경성대 3년, 오보에), 전지원(동아대 4년, 바이올린), 정혜주(부산대 2년, 첼로), 김혜진(인제대 4년, 바이올린), 박선영(동아대 4년, 오보에), 탁서연(부산대 3년, 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The early years

시민회관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6월 6일-8일 금-일요일 오후 1:00, 3:00

소극장

우리의 전래동화를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으로 풀 어낸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패티김 50주년 기념 대공연

- 꿈의 여정 50년, 칸타빌레 -

6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6월 8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관람료 VIP석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B석 3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뮤지컬 소리도둑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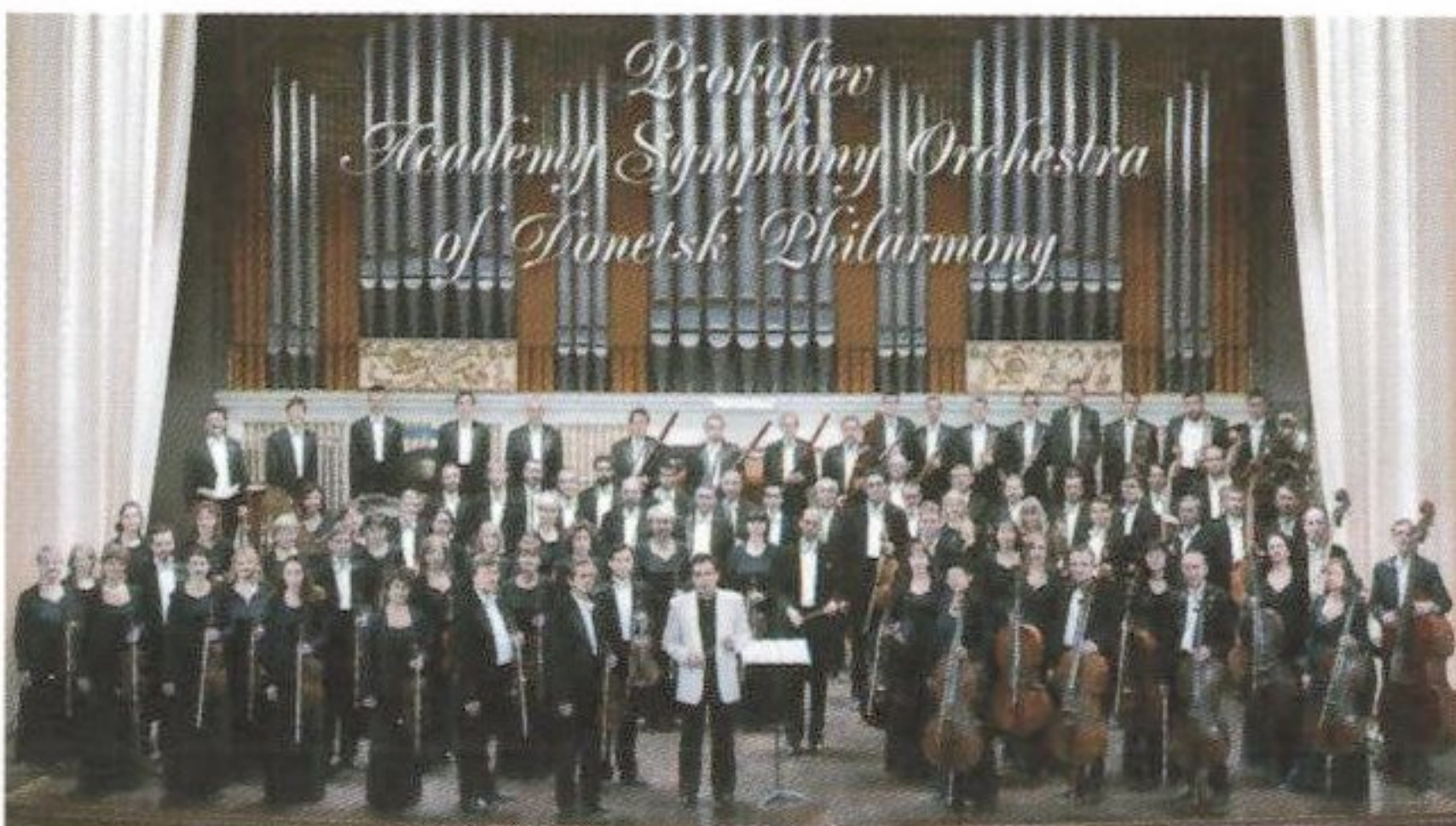
아빠를 잃은 슬픔으로 오직 노래로만 이야기하는 주 인공 소녀와 그 소녀의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하나되어 노래하는 이웃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 작, 연출/조광화

· 출연/남경주, 최정원, 송영창, 심재영, 박도연, 박세현, 라준, 임선애, 이현섭 외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문의 예술기획 자유(1599-9210)



MBC 제 1086회 목요일음악감상회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75년의 역사를 가진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로 마련되는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 지휘/김영근

· 협연/정거화(테너), 배웅철(바리톤), 정미순(소프라노), 강선아(플룻), 윤시내(피아노), 문숙연(첼로), 박경희(바이올린)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오페라소사이어티(622-3336)



앙상블 '디토 플러스' 리사이틀

6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클래식계의 젊은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이번 무대는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재키와 자니 리, 첼리스트 패트릭 지, 더블베이스 연주자 다순 창이 함께 출연,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K.423

베토벤/현악4중주 제 9번 '라주모프스키에게 바치는 노래'

슈베르트/송어 5중주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6월 21일-2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요술램프를 찾아 떠나는 뽀로로와 숲 속 친구들의 모험이 춤과 노래, 화려한 영상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작/오미영 · 연출/허승민, 심문섭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5,000원

문의 SPA엔터테인먼트(760-1166)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4일 조신미, 이한성 듀오콘서트

소프라노 조신미와 테너 이한성이 함께하는 듀오무대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외숙

■11일 상무스님의 붓다 뮤직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하는 상무스님이 편곡한 클래식 및 국악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18일 유망 신예음악회

· 플룻/김예나(부산예고 2년), 이효권(부산예고 2년), 조혜영(부산예고 3년), 신가영(부산예중 1년), 이인애(부산예고 2년)

· 오보에/이현수(부산예고 1년)

■25일 프랑스 가곡의 밤

소프라노 김윤희와 박하영, 첼리스트 양욱진이 들려주는 프랑스 가곡의 밤.

· 피아노/이승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연주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글로벌아트홀

미국에는 카네기홀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위그모어홀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글로벌아트홀이 있습니다.
글로벌아트홀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어쿠스틱연주홀 · 녹음홀입니다.

공연장대관 음반제작 멀티미디어실대관 글로벌콘서트바트리 -2008 하반기 대관접수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 녹음홀

607-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
http://www.glovil.org http://cafe.empas.com/glovilarthall
E-Mail: glovil@paran.com Tel. 051-505-5995/051-504-5994

GloVil Art Hall

민병수발레단 제12회 정기공연

6월 5일 목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알비노니의 곡을 주제로 클래식 테크닉의 향연을 선보이는 'Le Grand Ballet Classique'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소재로 한 '오디세우스의 귀향' 등 창작발레 두 작품을 선보인다.

· 안무/민병수 · 지도 및 연출/김희정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0-1740, 2947)

최은영 귀국 피아노독주회

6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Diplom, Konzertexamen, Zusatzstudium)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최은영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라벨/거울 중 '나방', '슬픈 새', '대양 위의 조각배'
브람스/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118

쇼팽/4개의 담시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은영(553-4434, 010-5115-4327)

가족뮤지컬 토끼의 용궁여행

6월 6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7일 토요일 오후 1:00, 3:00 소공연장

알록달록한 형광물고기와 산호, 해초로 가득한 바닷속 용궁으로 떠나는 토끼의 모험이야기가 흥겨운 우리 가락과 춤으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연출/이국희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극단 누리(053-424-8347)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브람스를 만나다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1995년 피아노 트리오로 출발하여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회,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4중주 제 4번 K.157

브람스/피아노5중주 바단조 작품 34 등

· 연주/백재진(바이올린), 이은옥(바이올린), 정준수(첼로),
노경원(피아노), 하소연(바이올린), 임솔빈(바이올린), 임정은(비올라), 배성아(첼로)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김승환 피아노 독주회

-러시아의 피아노 음악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 및 초청연주회, 실내악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승환 독주회.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전주곡 작품 34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승환(011-9028-0515)



가족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2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소공연장

어린이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족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6월 28일-2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러시아 국립연극대학 인형극학과에서 마리오네트를 공부하고 귀국한 인형극 연출가 김종구가 직접 제작한 목각인형 마리오네트로 선보이는 환상의 무대.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해운대 문화회관




원준연 클라리넷 독주회

6월 8일 일요일 오후 6:00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카셀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리더, 부산윈드오케스트라, 뉴프라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독주회.

프로그램

단지/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나장조
번스타인/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p>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영</p> <p>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p> <p>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p> <p>▶ 국 산: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p> <p>▶ 외국산: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p> <p>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별 선물용최고</p> <p>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p> <p>▶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p> <p>▶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p> <p>▶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p> <p>▶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p> <p>▶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p> <p>▶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p> <p>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p>	<p>새 소식!</p> <p>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p> <p>세계지도계 초유</p> <p>한국발명특허획득</p> <p>*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정지도(값 5,000원) 	<p>since  1955</p> <p>문우당</p> <p>MUN WOO DANG BOOK STORE</p> <p>www.munbook.co.kr</p> <p>문우당서점</p> <p>Tel: 245-3843(대표)</p> <p>245-2714(공영문의)</p> <p>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p> <p>(미니몰 건너편)</p> <p>각종 공연에 매처</p> <p>CGV10% 적립 통도원타자아 경주월드</p> <p>할인 판매처</p>
--	---	---

· 피아노/김성희 · 호른/김용권
· 해설/김윤선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원준연(019-660-3919)



2008 대중과 함께 하는 현대춤 해설이 있는 현대춤 '타래 V(Horizon)'

6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삶의 타래는 맺고 풀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창작춤. '타래-인생의 고리', '움직이는 사람들-일상적 군상', '인형-나라는 개별적 주체' 등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 연출/함수경 · 안무/김정숙

· 성악/박훈, 한지연

· 연주/이주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특별출연/김세진(마임), 장선미,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관람료 무료

문의 김정숙(010-5521-0603)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6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1,000원의 행복 제 2탄 7080 Pop & Jazz

6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팝 인 라이프, 소리사랑합창단, 재즈싱어 홍노경, 색소폰 앙상블이 7080 세대의 꿈과 추억을 간직한 다양한 팝과 재즈음악을 들려주는 '7080 Pop & Jazz' 무대.

관람료 균일 10,000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음속도문화회관

따각따각 피노키오

6월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대공연장

천을 이용해 다양한 무대연출을 시도하는 클로스 뮤지컬로 신기한 그림자극과 흥겨운 탭댄스, 객석과 함께 만드는 풍선바다 등이 재미를 더한다.

· 작, 연출/김종연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위자료

6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가난한 집안의 장남 명수가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은 거액의 돈을 위자료로 받지만, 죽은 줄 알았던 명수가 살아 돌아오면서 위자료를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으로 시작되는 부산시립극단 찾아가는 예술단 특별공연 '위자료'.

· 작/차범석

· 연출/채윤일

· 출연/제정경, 이환희, 이은주, 박민철, 오영섭, 신동훈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KBS 부산홀



2080 추억의 낭만 콘서트

6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1970, 80년대 청년문화를 이끌어왔던 그 때 그 사람, 가장 보고싶은 가수, 가장 듣고싶은 노래를 선정해 마련한 2080 추억의 낭만 콘서트.

· 출연/김세환, 이동원, 이용복, 하남석, 뚜아에무아, 임희숙, 김세화, 사월과 오월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문의 스타라인(1644-7080)

시경이가 들려주는 성시경 이야기

6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6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김경호 금의환향 콘서트 - 부산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와이믹스 엔터테인먼트(757-9876)

YAMAHA 아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 함께 ·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아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아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경성대학교

박기영 부산콘서트

6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콘서트홀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문 의 그린비엔터테인먼트(758-2567)

가톨릭센터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3일 소프라노 안성민 독창회

한양대학교 성악과 및 이태리 R.Leoncavallo 아카데미,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안성민 독창회.

■10일 바이올리니스트 정덕원 독주회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밀레니엄 현악4중주단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덕원이 밀레니엄 현악 4중주단과 함께하는 무대.

· 연주/정덕원, 이미하, 구영숙, 김희은
· 피아노/남필선

■17일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신라대학교와 효성여대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음악원, 토스카니니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정이 들려주는 사랑의 하모니.

■24일 김경민, 서지은 피아노 듀오콘서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무대공감-시즌 3

6월 4일(수)-12월 31일(월) 소극장

매달 다양한 테마를 가진 연극, 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가톨릭센터 무대공간 세 번째 시즌.

■ 2008 원숭이 피터

4일(수)-14일(토) 평일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7:00(월-화요일 공연없음)

원숭이 피터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인간세계의 모순과 정체성 문제를 배우 김세진의 웃음과 감동코드로 풀어낸 모노드라마 '원숭이 피터'.

· 원작/프란츠 카프카

· 각색, 연출/김세진

■ 남산놀이마당 사물놀이 30주년 축하공연

'Good! 굿'

19일(목)-21일(토) 오후 7:30

1978년 이광수, 故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로 출발한 사물놀이 3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

■ 재즈콘서트 27일(금) 오후 7:30

2007년 색소폰주자 최창근을 중심으로 결성된 재즈 앙상블 '최창근 collective'의 재즈콘서트.

· 연주/최창근, 광영일, 김일황, 최춘광, 민주신

■ 락콘서트 'Many 樂' 28일(토) 오후 7:3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락그룹 라루나, 버진 클레이, 판다즈가 마련하는 락콘서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5,000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글로벌아트홀

제 5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우수입상자 연주회

5월 31일 토요일 오후 7:30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우수입상자 연주회.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7,000원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김윤지 첼로 독주회

6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동서문화음악콩쿠르,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브니엘음악경연대회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부산예고 2학년 김윤지 첼로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미국 콜로라도 레거시 남성4중창 2008 전국투어 콘서트

6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미국 콜로라도 레거시 남성 4중창단이 펼치는 전국투어 부산무대.

관람료 균일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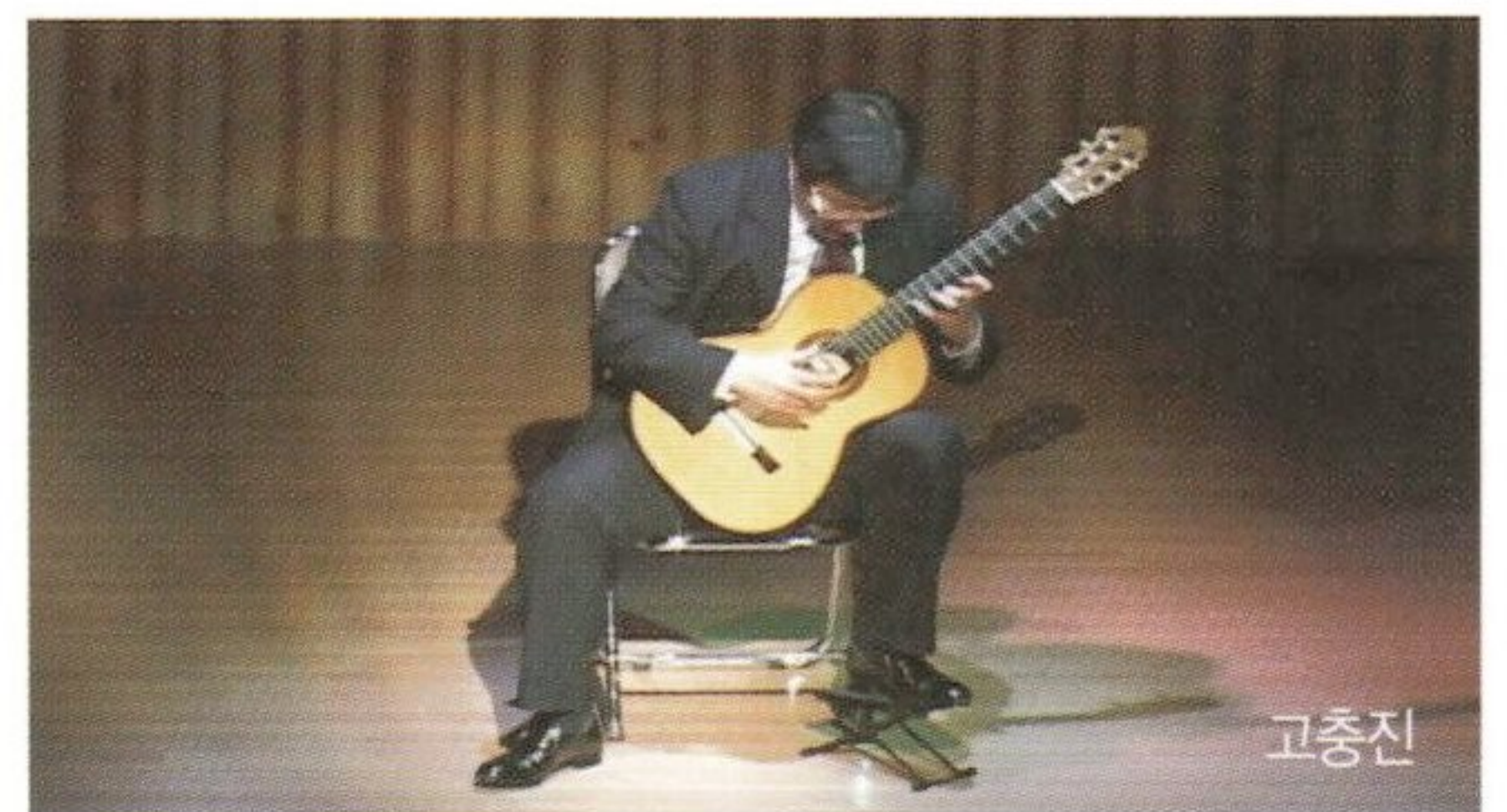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대학교 Vision 2008 음악회

6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웃 주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사랑의 가족음악회

6월 29일 일요일 오후 7:00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과 제자들, 색소폰 연주자, 성악가 김인설, 문경식, 글로벌찬양과이어가 마련하는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관람료 무료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과일주스+쿠키 ₩ 5,000원
- ★생돈가스 ₩ 6,000원(디저트 포함)
- ★팔빙수+쿠키 ₩ 5,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부산의 소극장



2008 JUMP 부산

5월 3일(토)-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무술인가족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화제의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문의 (주)아트포(744-4885)



흙커밍데이

5월 7일(수)-6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7:30, 일요일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1980~90년대의 치열한 현실을 살았던 사진동아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목격한 역사와 숨겨진 기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극단 새벽 '흙커밍데이'.

· 작, 연출/이성민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초콜릿 팩토리 개관 기념 첫 공연 그 남자 그 여자

5월 9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운명적인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 그리고 쓰라린 이별과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 씁쓸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린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 각색, 연출/추상욱
· 출연/김민우, 빈혜경, 남지선, 권우람, 박봉민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평일 20%, 주말 10% 할인)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염쟁이 유씨

5월 16일(금)-6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6/6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2006년 서울연극제 인기상 수상작이자 소극장 연극 사상 최단기 6만 관객을 돌파한 '염쟁이 유씨'.

민족광대상을 수상한 배우 유순웅이 1인 15역을 맡아 소박하고 진솔한 염쟁이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노래가 있는 마당극 오래된 만남

6월 5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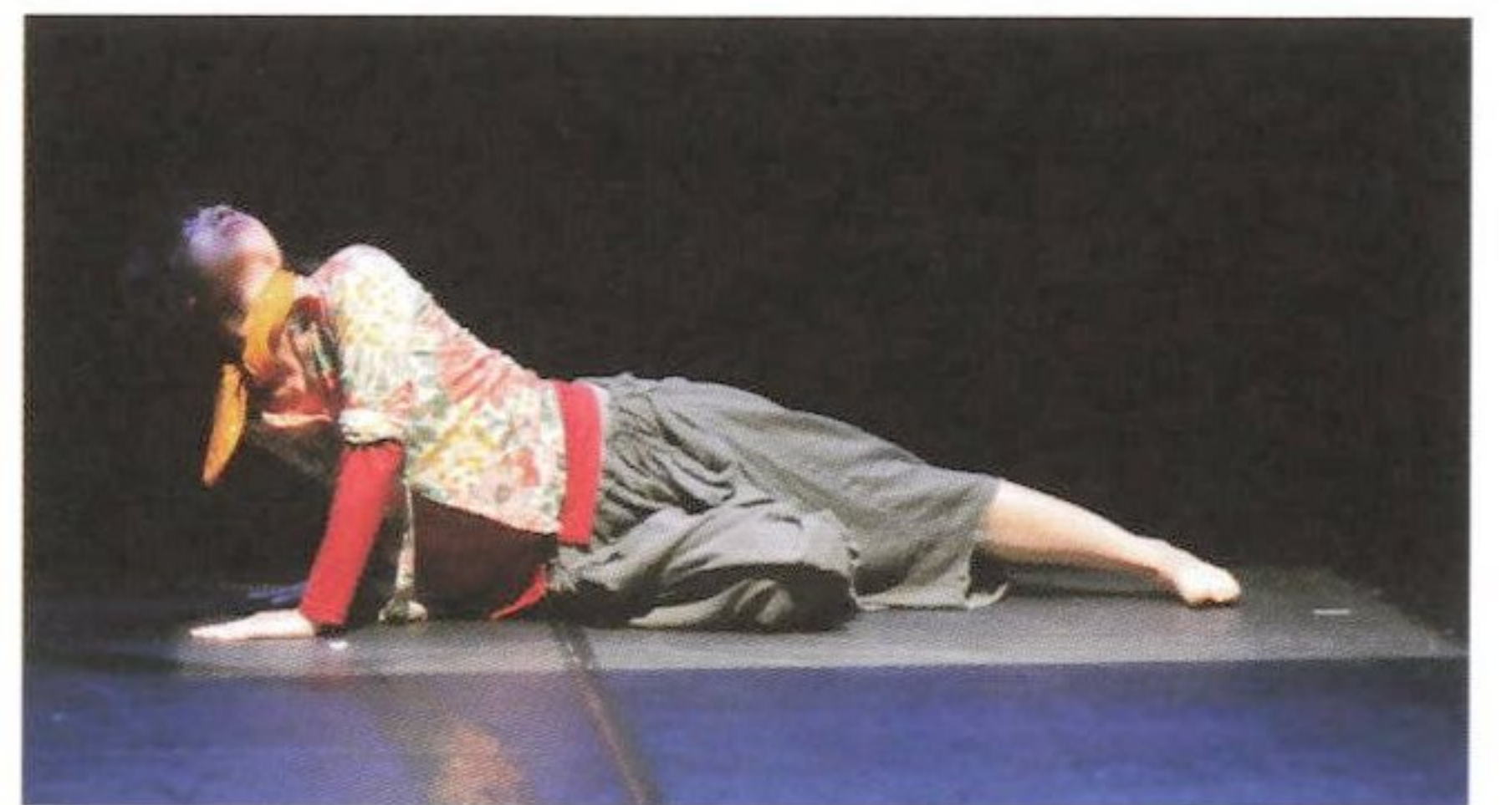
주말 오후 5:00 일터소극장

5·18이라는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죽어도 잊지 못하는 사랑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해주는 노래가 있는 마당극.

· 작/반민순 · 각색 및 연출/김기영
· 출연/윤순심, 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령순, 정영주, 안우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일터소극장(635-5370, 016-436-7121)



2008 연분홍 '품다, 풀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춤의 연분으로 만난 붉은 인연'이라는 뜻으로, 자유로운 춤세계를 구현하는 독립춤꾼들의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인 '연분홍'의 2008년 정기무대.

삶의 과정 속에서 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존재들을 춤언어로 풀어낸 창작춤 7편을 선보인다.

참가작

KISS(안무/허경미), 병어리 춘앵2(안무/김미란), 개인적 중력(안무/강희정), 사람꽃(안무/임현미), 별뿔별 보며 소원빌기(안무/이지혜), 위로(안무/조희정), MIND THE GAP(공동안무/송윤경, 박근대, 김지욱, 차진업)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원향미(016-756-1962)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어드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창작뮤지컬 결혼

6월 20일(금)-7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한 남자의 결혼대작전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창작 뮤지컬.

· 작/이강백 · 연출/정대경
· 출연/조용수, 유광준, 지현수, 차지은, 박혜미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어떤 싸움의 기록

6월 24일(화)-7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권력의 폭력에 대한 억압되고 감추어진 적대성을 드러내는 처절한 난투극인 극단 차이의 '어떤 싸움의 기록'.

· 작, 연출/구현철
· 출연/하현관, 진선미, 유재명, 이효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2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행사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8 생명의 金魚를 찾아서

5월 30일(금)-6월 1일(일)

금정산 및 부산시내 일원

■5/30일(금) 오후 5:00 온천천 세병교
흘러 춤추는 물-생명춤판

■5/31일(토) 오후 2:00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금정산성 동문

생명의 금어를 찾아서-달빛 걷기

■6/1(일) 오후 12:00 금정산 동문

단오맞이 물굿

문 의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807-0490~1)

제 73회 시울림 시낭송회

6월 1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 시인/강갑재, 강문출, 김길녀, 김화자, 박춘석, 송인필, 이상개, 전홍준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영광문화예술원 6월 특강 사진가 최광호와의 만남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문 의 영광도서(816-9500)

전시



허필석 개인전

5월 17일(토)-6월 15일(일) 오픈스페이스배

문 의 오픈스페이스배(724-5201)



직현 허달재展

남도에서 날아온 5월의 풍경

5월 20일(화)-6월 15일(일)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트 갤러리, 가양갤러리

조선말 화단을 주도한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장손자로, 전통적 문인화의 내면정신과 과감한 색채감으로 신남종화를 창시한 직현 허달재 작품전.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위한 지역작가 초청 전시회

5월 24일(토)-6월 30일(월) 강서예술촌

문 의 강서예술촌(972-3912)

신경균 도예전

5월 29일(목)-6월 11일(수) 코리아아트갤러리

문 의 코리아아트갤러리(742-7799)

이현주 석사청구전

6월 3일(화)-6월 8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자연 바라보기

6월 10일(화)-6월 15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수잔 더저스 작품전

6월 13일(금)-7월 13일(일) 조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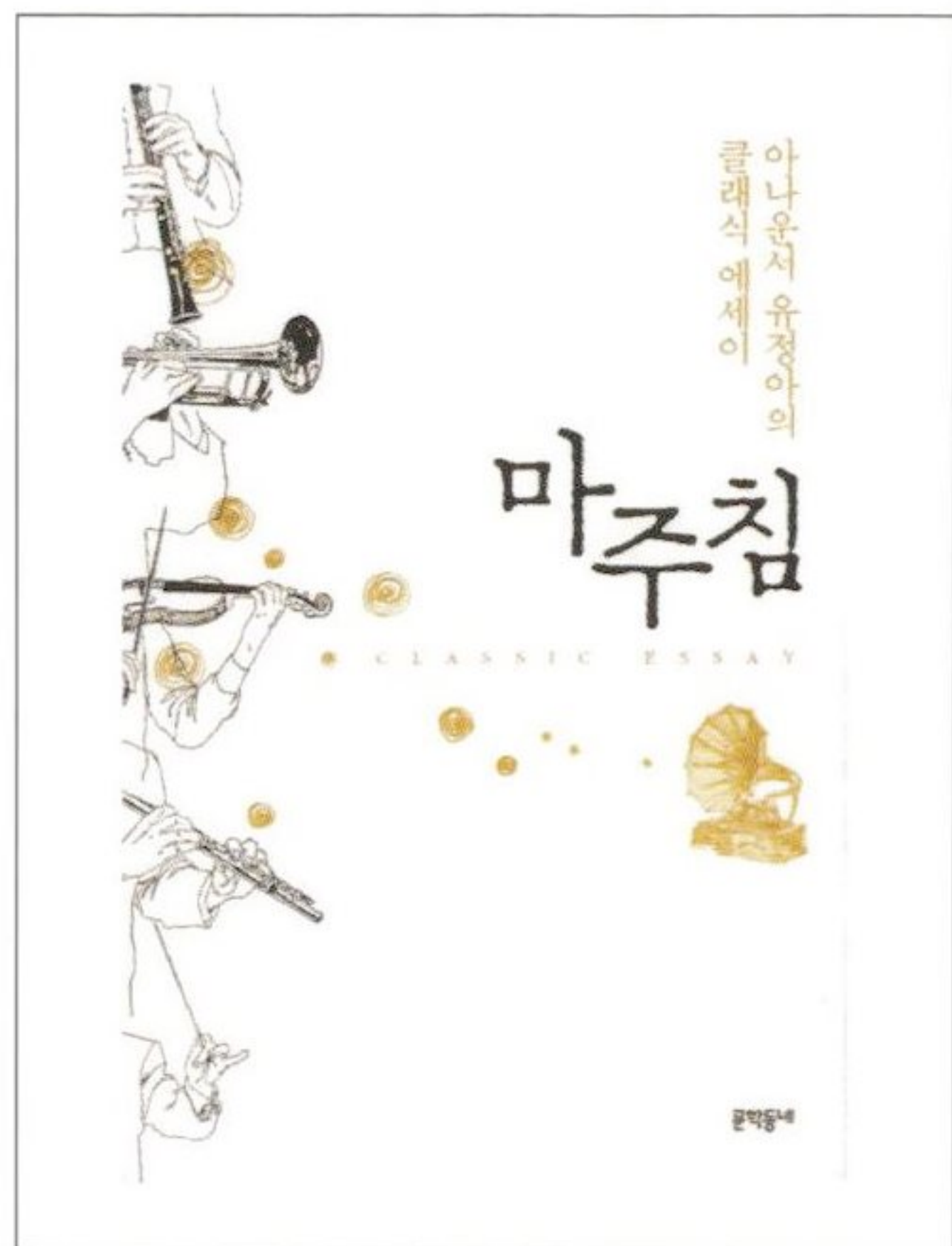
카메라 없이 제작되는 사진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영국 사진작가 수잔 더저스의 한국 첫 개인전.

문 의 조현화랑(747-8853)

박성진 개인전 '일상의 풍경전'

6월 17일(화)-6월 22일(일) 영광도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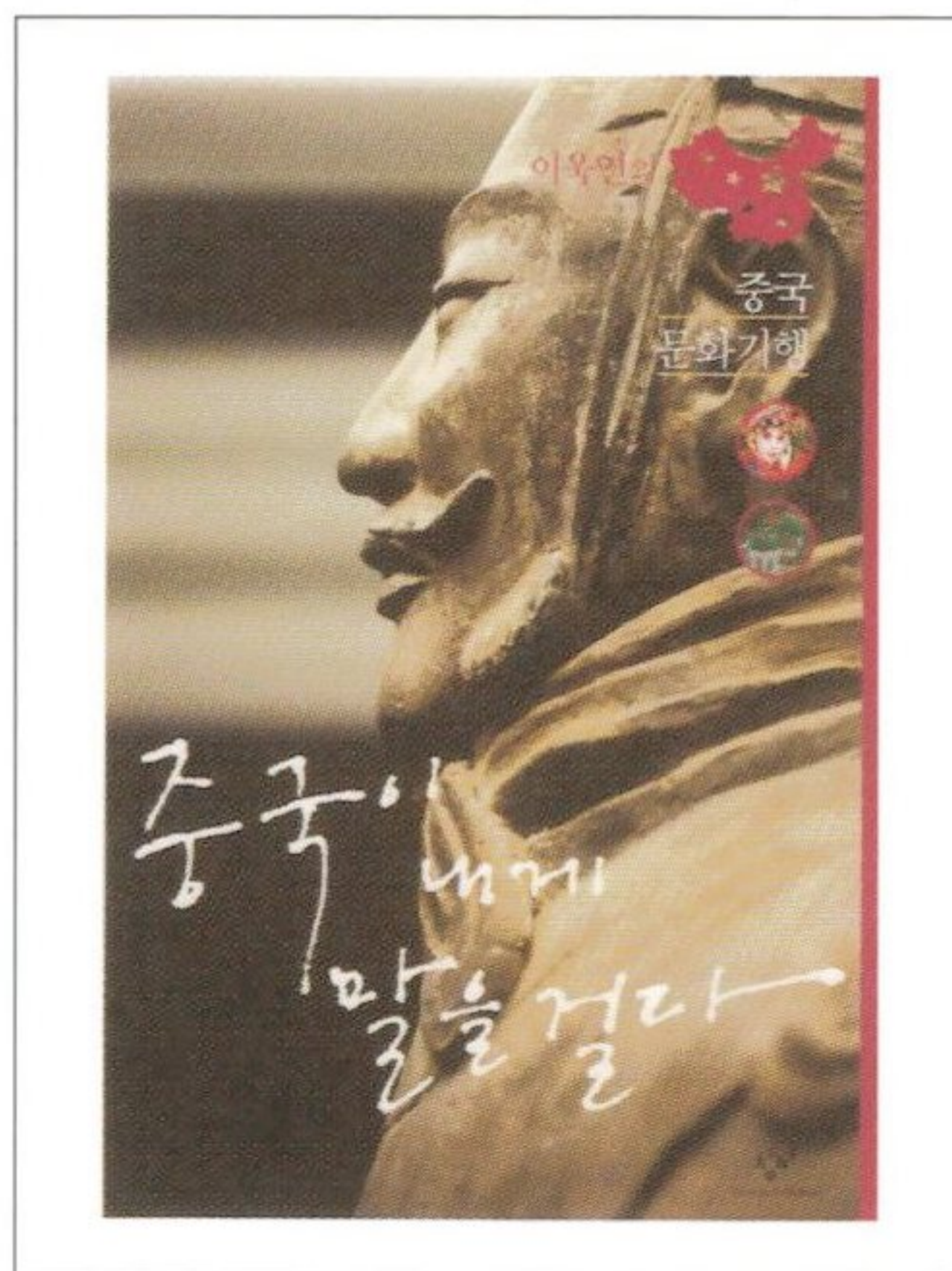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4)



마주침

• 유정아 지음 • 문학동네
• 393p • 18,000원

KBS FM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한 아나운서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음악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따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클래식이 대중음악보다 여러모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에 대한 편견과 진입 장벽을 허물고 고전음악 고유의 매력에 눈뜰 수 있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았다. 음악보다 인간을 책의 테마로 삼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책 속에는 저자가 만난 많은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이 함께 흐른다.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가운데 하나로 만든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의 연주를 듣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와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가 저 세상의 굴드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이 내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악을 듣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일입니다.” 한 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중국이 내게 말을 걸다

• 이옥연 지음 • 창비
• 372p • 18,000원

영화를 실마리로 현대 중국, 오늘날의 중국을 문화적으로 푸는 강의로 학생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온 이옥연 교수가 중국문화기행서를 펴냈다. 한중수교(1992년) 직후(1992-94년) 베이징 사범대에서 유학했고 서강대에서 중국 문학과 문화를 가르치는 틈틈이 중국을 오가며 중국문화를 연구해온 이옥연 교수는 중국 본토유학을 다녀온 1세대에 속하는 젊은 학자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을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체험과 중국 문학과 현대영화 등을 연구해오면서 축적된 지식을 이 책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현대 중국문화의 심층을 전달하는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감으로 중국에 대해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쟁점을 다룬 영화를 해석하면서 그 배경이 된 지역을 여행하는 형식으로 씌어져 누구나 쉽고 즐겁게 중국문화와 역사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16편의 중국 현대영화 비평을 곁들여 중국 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정치와 경제적 측면의 ‘하드 차이나’가 아니라 문화를 다룬 ‘소프트 차이나’이다.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 정진국 글·사진 • 생각의나무
• 335p • 13,500원

미술평론가 정진국 씨가 유럽의 책마을을 돌아보았다. ‘책마을’은 헌책방이나 고서점이 모여 있는 동네를 말한다. 1962년에 영국 웨일스 헤이 온 와이에서 리처드 부스가 성을 사들여 헌책방을 크게 열면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구 1천3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37개의 헌책방과 16개의 갤러리가 있는 이곳은 이제 책마을 중추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농촌의 발전과 관광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제안되었는데, 가장 성공적인 새로운 관광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영국의 헤이 온 와이를 모델 삼아 책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전역은 물론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등 전 세계에 책마을이 조성되었다. 책마을은 지방문화의 활력을 도모하는 정치실험이자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동참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저자는 2007년부터 2008년 초봄까지 1년에 걸쳐 유럽 곳곳에 박혀 있는 스물네 군데 책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오래된 책과 책을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124컷에 달하는 사진이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한다.

NEWS

부산시립극단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순천시립극단과 교류 공연 - 6월 18일 ~ 1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공연 -



신임 수석 연출가 채운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순천시립극단을 시작으로 국공립극단과의 교류 공연을 가진다.

6월 18일 첫 교류지인 순천에서는 6월 5일 제 32회 정기공연작품으로 무대에 오르는 일본 작가 쓰쓰미 야스유키의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이 작품은 화장터에서 연기가 되기 직전의 두 영혼이 이승을 하직하면서 나누는 진솔한 우리네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연기처럼 덧없고 안타까운 인생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NEWS

6월 찾아가는 예술단 일정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시민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6월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6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이 부산시청과 특수학교, 병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부산시립극단이 동래문화회관에서 연극 '위자료' 특별 공연을 갖는다.

일정 및 프로그램



6월 11일 수요일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방랑자, Good Night Ladies,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박연폭포 등
· 지휘/김강규 · 피아노/이승윤

6월 11일 수요일 오후 2:00

롯데호텔 라스베가스 극장 3층
부산시립무용단
'제10회 홀로 어른 위로 대잔치'
프로그램/화중신선, 설장고놀이 등
· 안무/홍기태

6월 12일(목)-13일(금)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 '위자료'
· 원작/차범석 · 연출/채운일
· 출연/제정경, 이환희, 이은주, 박민철, 오영섭,
신동훈

6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동요모음, 남성중창 등
· 지휘/전상철

6월 15일 일요일 오전 11:00

금정산 북문 산상음악회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30

솔빛학교 강당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사랑가, 부채춤 등
· 안무/홍기태

6월 18일 수요일 오후 12:30

부산시청 야외광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설장구 가락,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선반 판굿 놀이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5:00

보훈병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대금독주, 국악실내악 등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7)

허황옥의 차향을 찾아서 떠난 김해 여행

김해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로움이 가득한 고장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과 떠난 5월 테마여행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김해 역사여행.

5월 9일 오전 9:0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과 부산시립무용단 정진희, 서정숙 단원 등 44명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김해로 출발했다. 한 시간 남짓 달려 동김해 톨게이트를 지나 가야문화의 고도 김해에 다달았다. 수로왕비 허황옥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이번 여행에는 첫 단기 방학을 맞은 학생과 어머니 참가자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특히 이번 여행은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장군차 그린투어 '허황옥의 차향을 찾아서' 프로그램 시범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가야의 역사와 허황옥과 장군차에 대해 보고,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장군차는 가야 역사의 문화를 상징하는 김해의 명차다. 김해시청 기술지원과 최호영, 조규범 님의 안내에 따라 정기회원 가족들은 첫 방문지 분산성에 올랐다. 김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분산성 봉수대에 올라 김해시를 굽어보며 인도 아유타국에서 떠나면 뱃길을 따라 이곳 김해에 도착한 허황옥의 여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분산성 방문에 이어 허황후의 능과 구지봉을 방문, 문화유산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가야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허황옥은 수로왕 7년인 서기 48년에 16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하여 왕비가 되었고 서기 18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허황옥의 능을 나와 한옥체험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행이





진행 될수록 허황옥에 대한 신비감 못지 않게 장군차 맛이 궁금해졌다. '맛이 장군감이라, 과연 어떤 맛일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한옥체험관 2층 시음장에서 장군차 시음시간을 가졌다. 장군차 맛은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하다. 처음 맛보는 장군차의 깊은 맛과 향에 취한 회원들을 위해 부산시립 무용단의 태평무 공연이 이어졌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의상을 차려입은 서정숙 단원의 모습에서 허황옥의 위풍이 느껴진다.

공연에 이어 한식당에서 점심시간을 가진 뒤 한옥체험관 인근에 위치한 장군수를 관람하고 장군차 자생지인 생림 선곡다원으로 이동, 장군차 만들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장군차는 다른 차나무에 비해 잎이 둥글고 크며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선곡다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차잎을 따다.

한 시간 남짓 따낸 차잎은 솥에서 덥고 건조 시키고 유념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군차의 매력에 한층 더 다가 갈 수 있었다.

정성껏 차를 만드느라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해 시립무용단이 준비한 '우리춤 체조'를 흥겹게 추면서 5월 특별한 김해 여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글, 진행/백경옥〉

※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신 김해 시청 장군차 그린투어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군차 시음장

▮ 김해시청 본관청사 1층 (매주 월, 목요일 10:00 ~ 17:00)

▮ 김해 한옥체험관 2층(매주 토, 일요일 10:00 ~ 17:00)

※ 7월은 **청도**로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테마여행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6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강난주(연제구 거제3동)

김성화(북구 화명동)

김오순(남구 용호1동)

김학정(동구 범일 2동)

남효숙(연제구 연산9동)

박미정(수영구 망미동)

우선옥(수영구 광안3동)

정미정(동래구 온천동)

최미선(해운대구 재송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엽서 당첨자

강미옥(해운대구 우2동)

권호경(부산진구 가야2동)

유용환(남구 대연4동)

이경미(남구 대연3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반택만(남구 대연4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전은옥(남구 대연3동)

조옥재(남구 용호동)

허경연(서구 동대신동)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Royal Dream of the Moon

2008년 7월 11일(금)~13일(일)

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7:30 | 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혁군주 정조, 그리고 미완의 꿈... 누가 이 시대의 정조를 꿈꾸는가

영화와 드라마, 서적 등의 문화 콘텐츠 소재가 되며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정조대왕.

수구와 개혁의 공방이 한창인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조대왕이 꿈꾸던 미완의 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정조는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현 시대인들에게 새로운 화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왕이자,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 이산. 그리고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아들 정조대왕.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이시대의 정조를 염원하며 화성에서 꿈꾸다를 만나보자.

주 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 관 부산문화회관, 가마골 소극장

입장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6월 3일~17일까지 예약시 20%할인, 6월 18일 부터 10%할인)

예 매 가마골 소극장(245-0042)

문 의 부산문화회관(625-8130, 607-6042), 국제신문(500-5222)

《명성황후》의 뒤를 잇는 새로운 대형역사뮤지컬의 감동 대한민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한국적 이미지와 색채의 미학

조선시대 문화를 무대 예술로 만난다! 화성축조과정과 봉수당진찬례의 재연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 음악상 2개부문 수상에 빛나는 작품성

제1회 더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남우주연상(민영기) 수상의 쾌거!



연출가 이 윤 택



정 조 민 영 기

- 연출, 극본/이윤택(서울연극제 대상, 연출상/동아연극상 대상, 희곡상, 연출상/백상예술대상 연출상/대산문학상 희곡상/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 작, 편곡/강상구(KBS대학국악제 우수작곡상 수상, 동아음악콩쿠르 작곡부문 2위 입상, 오래된 미래음악 월드뮤직콩쿠르 대상 수상)

100자 토크

2008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맥 '환생신화'

지난 5월 5일 극단 맥의 '환생신화' 를 온 가족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이번 달은 가족행사가 많은 달이라 모처럼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되새겨 보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가장인 저로서는 어른들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할지 새삼 일깨워 주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족' 이라는 끈끈함을 보여주는 꼭 추천하고 싶은 공연이었습니다.

박홍관(동구 수정1동)

2008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소나기'

책으로 만난 소나기를 '어떻게 뮤지컬로 표현했을까' 엄마와 한껏 기대에 부풀어 뮤지컬 '소나기' 를 관람했습니다.

소년 동석과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을 타고 전해졌어요. 6톤의 물을 쏟아부은 실제 비내리는 장면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도 노랑나비가 빨리 날아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영희(연제구 연산5동)

토요상설무대 '미스터리 VS 미스터리'

재미있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다시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야하는지, 왜 부모님께 효도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멋진 공연 선물해주신 시립극단 단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동숙(남구 대연4동)

연극 '보잉보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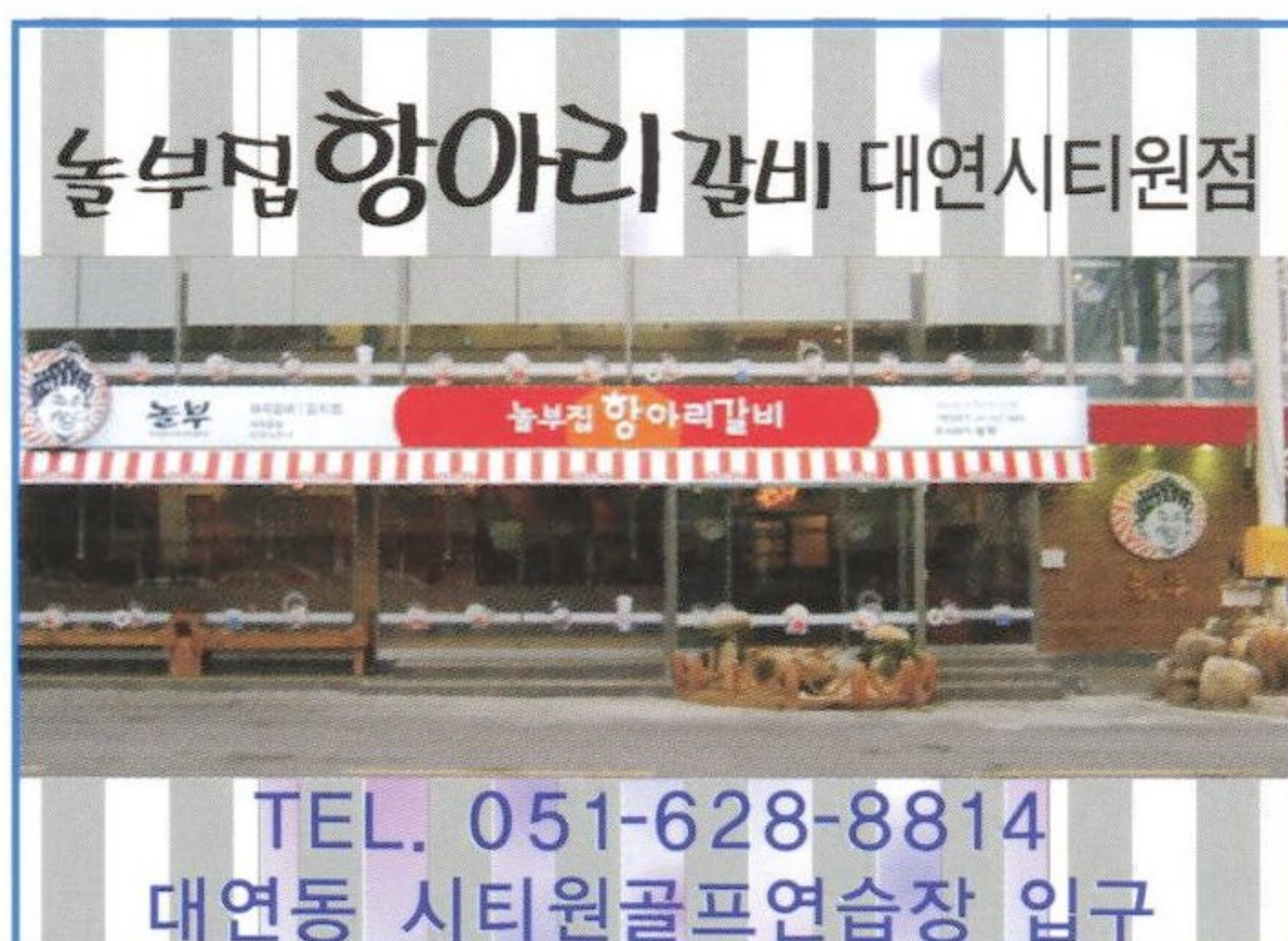
연극에 빠져사는 나에게 오랜만에 핵폭탄같은 공연이 나타났다. 한동안 기운빠져 축 쳐져 있던 나에게 큰웃음을 주었다. 현실성은 조금 없었지만, 중간중간 쓰러질 만큼의 큰 웃음을 선사해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가 아직도 생각나는듯하다. 머리 속에서는 다시 한번의 보잉보잉 연극이 펼쳐진다.

김현영(서구 서대신동 2가)

부산시민을 위한 다이나믹 부산페스티벌

늦은 봄밤 야외에서 펼쳐진 특별한 무대. 전통과 현대, 퓨전까지 어우러진 다양한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온가족이 함께 한 시간이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흐린 날씨, 강풍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든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정원(해운대구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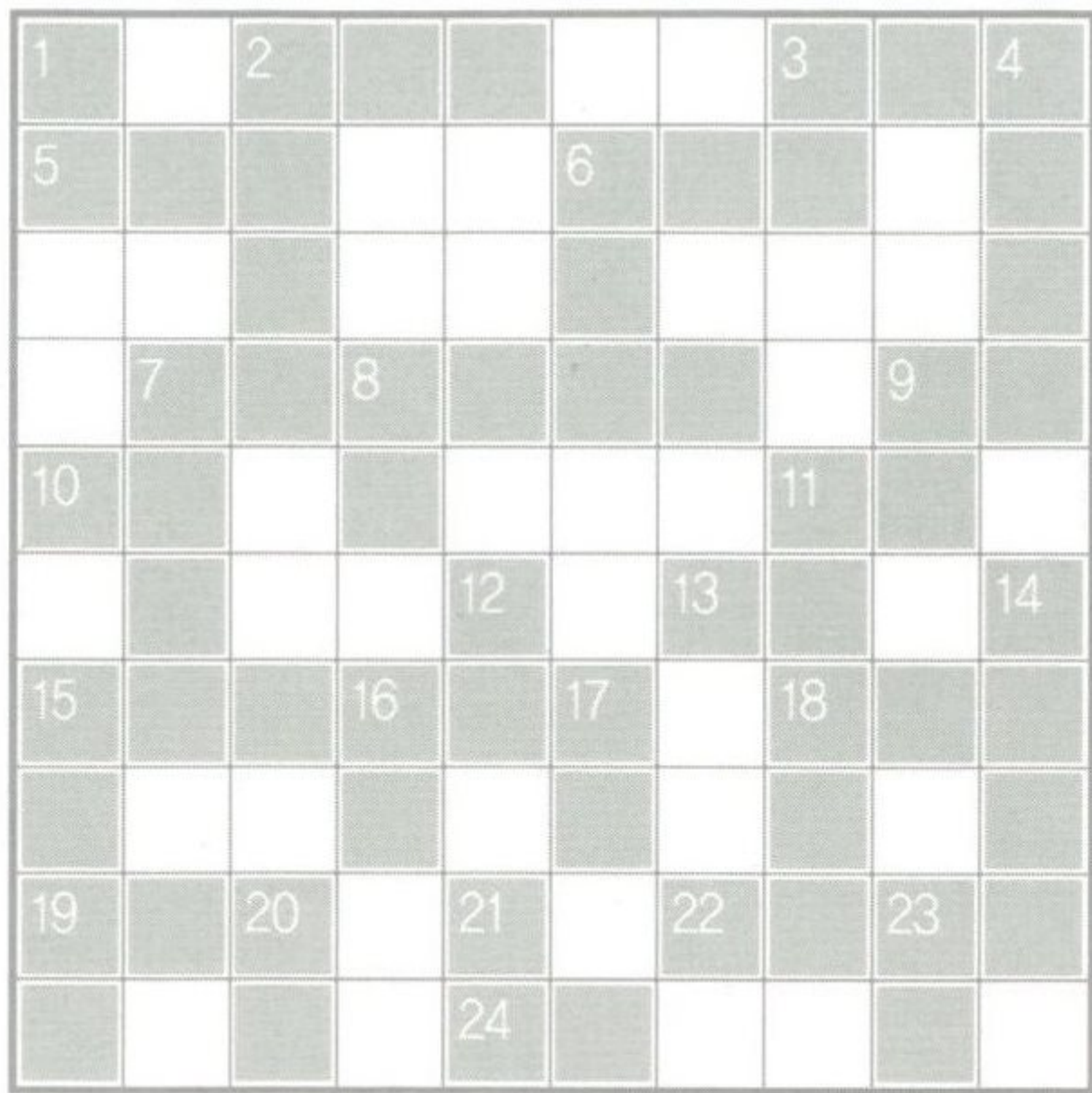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2. 지난 5월 5일 타계한 '토지'의 작가.
3. 판소리에서 조선 후기의 명창 박유전의 법제(法制)를 따라 부르는 창법(唱法) 유파. 섬진강 서쪽, 곧 보성, 광주, 나주 등지에서 성했다 하여 부쳐진 이름으로, 음색이 곱고 애절하다. ← 동편제.
5. 체코의 수도.
6.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연극 형태. 초창기에는 내용부터 무대장치, 의상,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극 양식이 일본색 그대로였으나 점차 우리 고유의 대중적 정서를 위주로 한 통속적 작품으로 발전했다.
7. 뛰어난 미술품이나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각종 정신적 충동이나 분열 증상. 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던 프랑스 작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9.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것으로, 공자 사상의 중심이 되는 효제(孝悌)와 충서(忠恕) 및 '인(仁)'의

도(道)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0. 앞뒤가 편평한 표주박 모양의 공명통에 메인 여섯 개의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11.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 신성일, 윤정희 주연의 1967년 작품.
13.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인상·일출'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인상파란 이름이 생겼다.
15.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오즈의 나라로 가게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뮤지컬 영화.
18. 신라시대의 고승 의상이 낙산사를 창건할 때 좌선하던 곳에 세운 정자, 바닷가 암벽 위 정자에서 맞는 해돋이 일출이 유명하다.
19.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책을 구해다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의 지조에 비유하여 그 답례로 그린 그림.
22.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의 전통적 머리모양.
24.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문고의 명인 백아가 자기의 소리를 이해해 준 벗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세로

1.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전용극장이 들어서면서 오픈형식으로 공연되고 있는 화제의 년별 퍼포먼스.
2. 1999년 오늘에서 20년 전 시각까지 주인공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영화배우 설경구가 주인공 영호역을 맡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3. 영화 '촉산'을 통해 홍콩 특유의 특수효과(SFX)를 확립했으며, '천녀유혼' 시리즈를 통해 홍콩 뉴웨이브에 앞장섰던 중국의 영화감독.

4. 영국의 여류작가 C. 브론테의 대표작.
6. 아랍어로 기술된 설화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한명으로, 뱃사람인 이 사람의 모험이야기가 따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7.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조지 루카스 감독의 미국 공상과학영화 6부작 시리즈.
8. 의식 속의 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그린 에스파냐의 초현실주의 화가.
9.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축석루에서 벌이는 잔치에 참석해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인물.
11.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서 살았던 네덜란드 소녀 안네가 은신처에서 사는 동안 적었던 일기. 사춘기 소녀의 성장 과정과 어른들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꾸밈없이 담겨져 있다.
12. 불교 의식에서 추는 춤. 크게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이 있다.
14.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한 대목. 춘향이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15.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영웅. 로마식으로는 율리시스로 불린다.
16. 고대 멕시코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번성한 인디오 문명.
17.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
20. 통일신라시대 각 주의 으뜸 벼슬.
21. 이십사절기의 하나.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6월 21일.
23. 포도과의 덩굴식물. 열매는 술을 담기도 하고 다소 신맛이 있으나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랑 다래랑.

지난호 정답

폴	포	츠	김	소	희	파
라	너	말	용	가	리	
로	미	오	와	줄	리	옛
이	집	아	조	니	땀	
드	뷔	시	에	복	선	
	카	네	이	션	통	영
거	문	고	리	문	신	드
	묘	무	언	극	사	하
외	아	작	사	하	라	큐
사	랑	의	찬	가	판	도
						라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식사권

김진주(영도구 청학2동)
강영수(중구 광복동)
남하윤(서구 서대신동 2가)
박세리(사하구 괴정 4동)
신화정(사상구 주례2동)

■ 놀부집 향아리갈비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김창욱(사하구 괴정2동)
김춘자(부산진구 범천동)
전우봉(남구 대연4동)
박진규(남구 대연3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김규성(남구 용당동)
김영화(부산진구 양정동)
김임숙(연제구 연산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백종순(연제구 연산2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권유진(금정구 장전동)
권태임(사상구 주례2동)
박진우(금정구 부곡동)
양윤희(사상구 덕포동)
백지은(사하구 하단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놀부집 향아리갈비 대연시티원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할인받자!!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직항여행 부산출발

부산에서 떠나는
미리가는 휴양여행!!



여유롭게 보내는 알찬 휴가
[푸켓직항] **보트라군 리조트 4일/5일**
ABP701 699,000원~



최고의 휴양지에서의 휴식
[세부직항] **코스타벨라 리조트 4일/5일**
APP754 699,000원~



미리 떠나는 휴양여행
[사이판직항] **하얏트 리조트 5/6일**
PSP701 1,049,000원~

추천! 유럽여행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다~



최소출발 10명부터 인솔자 동행!!
융프라우&이태리 일주 4개국 10일
EWP741 3,290,000원~



[노팁] '장미의이름' 배경지 **멜크수도
원과 소금광산+동유럽 5개국 10일**
EEP751 3,390,000원~



[노팁] 대한항공 연합 **융프라우&
서유럽 4개국 10일**
EWP743 4,190,000원~

무제한 골프여행

하나투어 골프담당자가
추천하는 골프여행



<무제한 골프>
마닐라 깔라따칸 5일
APG702 729,000원~



<무제한 골프>
항주/ 황산 (송백 C.C) 4일
CCG740 729,000원~



<무제한 골프>
사이판 아쿠아리조트 5일
PSG702 1,349,000원~

무릉도원 일주여행

부산↔장사 직항으로
실속있는 장가계 여행



♣ 실속 ♣ 무릉도원 일주
장사/장가계 4일/5일
CCP777 699,000원~



♣ 특식2회/발맛사지 포함 ♣
장사/장가계 4일/5일
CCP777+A 829,000원~



♣ ALL포함 + 천문산 ♣
장사/장가계 4일/5일
CCP777+H 1,0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3%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상담 담당자: 장우석팀장 직통 051-442-1271 / 이순남 직통 051-442-1272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1759

토요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수요남곡(가야금/김혜진, 오은영, 정미자, 윤경선· 거문고/이대하, 이유진 외)
 피리독주 '박범훈류 산조'(피리/박순자· 장구/신문범)
 중광지곡 중 '염불, 타령'(대금/김수일· 피리/박춘석· 해금/최윤희· 단소/최재호· 양금/장미진· 가야금/옥경화· 거문고/엄애리· 장구/이장우)
 판소리(판소리/정선희· 고수/신문범)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장구/최오성· 북/신문범· 징/전학수)
 ※해설/백규진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 프로그램

사랑의 노래, 클래식
 야상곡(Serenade, E.Toselli), 내 맘에 간직해 온 사랑(A.Rubinstein)
 사랑의 노래, 시네마
 우리를 위한 시간(A Time for us,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내 마음 변함없이(My Heart wil go on, 영화 '타이타닉' 중)
 테너 솔로(Tenor Solo) 김진영
 그대는 나의 모든 것(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바리톤 솔로(Bariton Solo) 김창돈
 불 꺼진 창(Fenesta che lucive, V.Bellini)

사랑의 노래, 스윗 소로우

먼길(영화 '왕의 남자' 중, 윤지영 편곡), 우리가 어느 별에서(백현주 편곡)
 사랑의 노래, 팝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All You Need is Love 등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수석지휘자)
 · 출연/소프라노 - 이정란, 남순천, 기미현, 최선희, 이정희, 정루디아
 알 토 - 손미숙, 김성미, 김미경, 신소운, 박진희, 김보경
 테 너 - 김진영, 조성기, 김추리
 베 이스 - 문동환, 박원한, 최성규, 김창돈, 구명금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6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산조춤(춤/이정인)
 쾌지나 칭칭나네(춤/정진희, 김주령, 권봉정· 수석)
 한오백년(춤/서현미)
 설장고춤(춤/김진영)
 태평무(춤/김동숙· 부수석, 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무당춤(춤/서정숙· 부수석)
 화중신선(춤/이현정,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 안무/홍기태
 · 기획, 해설/박소운

• 관람료 : 무료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7월 11일(금) 조상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청도 여행

세상의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던 청도 선인들의 지혜와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청도의 고택, 시골의 후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풍각 장터나들이,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상큼한 자두따기 체험으로 청도의 여름을 즐겨본다.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풍각 장터 기행
- ▷ 12:00 자두 따기 체험
- ▷ 14:00 청도 고택 탐방-운강고택, 임당고택, 만화정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8월 8일 (금) 포도가 익어가는 마을 영천 포도수확체험 및 문화탐방

전국 최고의 포도 생산지인 영천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탐스럽게 영근 영천의 명물 포도수확체험, 포도와 관련한 게임, 포도주 담기 행사를 통해 영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 시청 도착, 포도 농가로 이동
- ▷ 10:30 포도수확 체험 및 포도 관련 게임
- ▷ 13:00 중식 후 포도주 담그기
- ▷ 15:00 영천 문화 탐방-거조암, 임고서원
- ▷ 17:30 부산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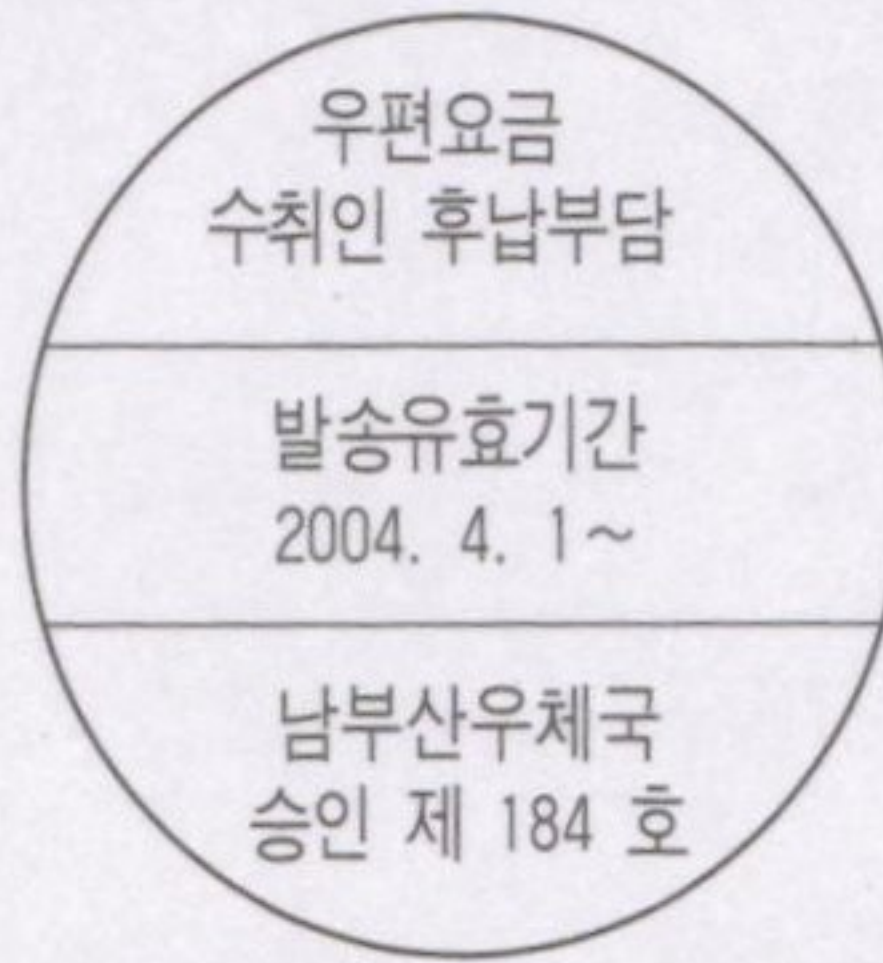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창작 뮤지컬 결혼 10% 할인



▶ 날짜 : 2008. 6. 20(금)~7. 6(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 작/이강백 · 연출/정대경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4. 1(화)~6. 30(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BUSAN 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EL.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7월 테마여행 응모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6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문화회관 교통편

- 버 스 : 51, 68, 134
-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 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 운행〉
- 출 발 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 산 은 행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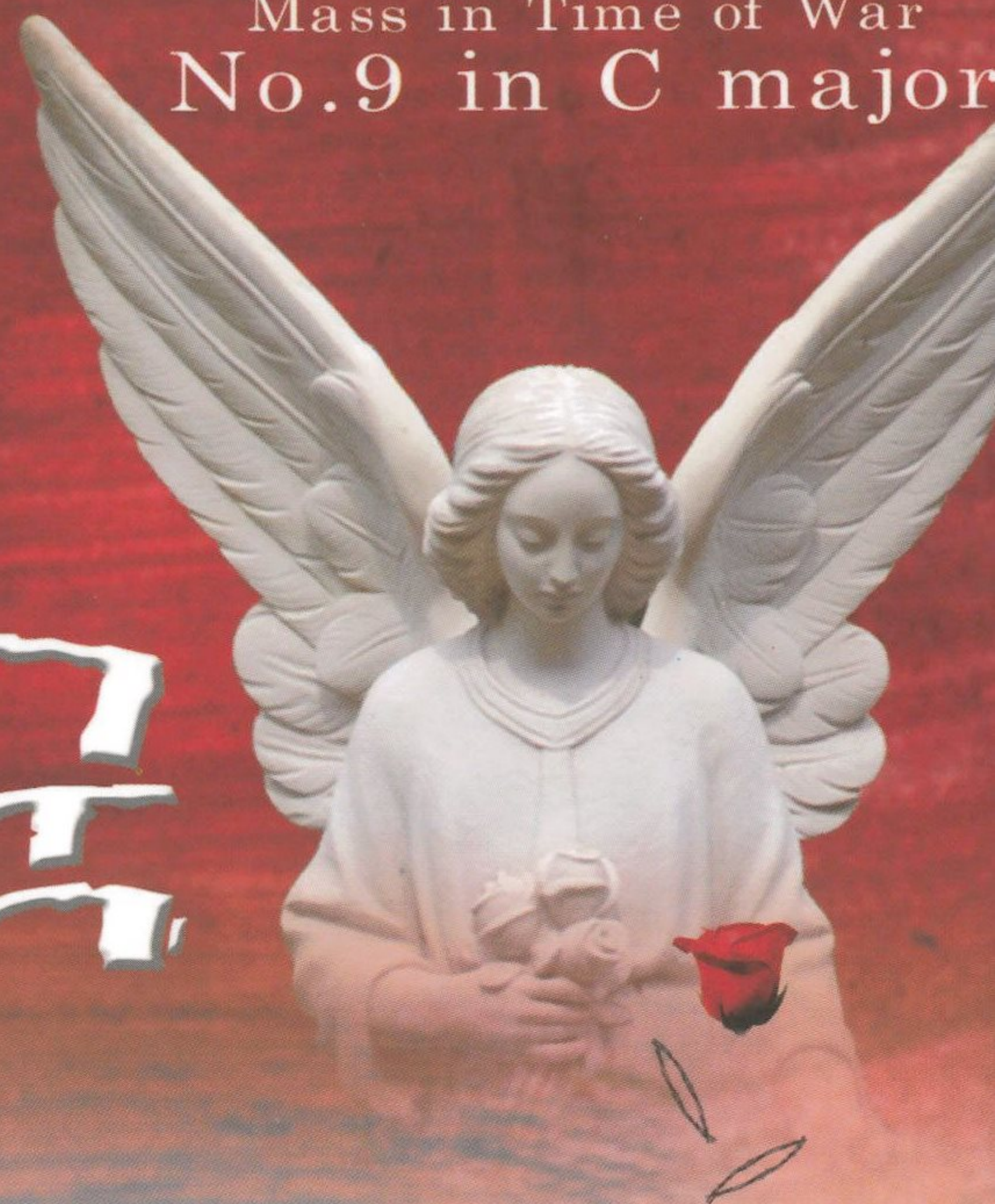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제 126회 정기연주회

My Homeland & J.Haydn (1732~1809) "Mass in Time of War No.9 in C major"



나의 조국

&

하이든 "전쟁의 미사"

J.Haydn (1732~1809)

- 제 1부 나의 조국(My Homeland)
 - 내 나라, 내 겨레
 - 우리의 작은 섬
 - 이 땅은 너의 땅(This Land is Your Land)
 - 혈맹 앞에서
 - 조국 (Homeland)

- 제 2부 하이든 (Franz Joseph Haydn, 1732~1809)
 - 전쟁미사(Mass in Time of War) No.9 in C major



지휘 김 강 규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2008. 6. 12(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



소프라노 최훈녀 엘 토 강희영 테 너 김지호 베이스 서관수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티켓링크 -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 www.bschorus.or.kr